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 행 인 이 강 혁
편 집 인 겸 주 간 이 장 희
편 집 장 이 영 환
외대신문사(☎962-7128, 961-4151)
외 대 학 보(☎961-4152,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
인 쇄 인 김 영 수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제 다2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593호 1992년 11월 17일 (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서울, 학생·학교측 7개항 조인으로 수업재개

학교발전을 위한 합의 사항

1. 캠퍼스 환경에 대해
1) 자곡동 그린벨트 해제 추진위원회를 92년 11월 말까지 구성한다.
2) 구성원은 학교당국 2인, 교수 4인, 학생 4인, 직원 2인, 동문 2인, 학부모 2인으로 하며, 구성원 선임은 학부모를 제외한 학교,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직원, 동문회에서 한다. (단, 학부모는 학교당국과 총학생회와 협의하여 선임한다.)
3) 권한 : ①추진위는 그린벨트 해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추진위는 그린벨트 해제 후 자곡동 부지의 사용방안(캠퍼스 부지사용여부 포함)을 결정한다. ②해제·추진위는 특별기구로 내규화 한다.
4) 부지 사용방안 결정시 학생대표는 전체 학생의 찬반투표를 거쳐 추진위에 그 김과를 반영한다.
5) 추진위는 중, 장기발전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한다.
6) 현 이문캠퍼스의 지속적인 면적 확대를 통해 새 건물을 신축하고 구 건물의 현대화(스팀 내외부의 장식, 조명 등)를 추진하며 각종 조경사업을 한다. 이의 구체화는 중·장기 발전 위원회의 계획을 통해 93년 상반기부터 96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한다.
2. 장기적으로 문과 계열 재조정을 통하여 서울은 인문캠퍼스로, 용인은 이공계 캠퍼스로 특화발전시켜 나간다.
3. 예결산 공개는 서울시내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며, 총학생회가 요구할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의 최종확정된 예결산 자료를 즉시 공개한다.
4. 동원농산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문제점을 개혁하여 효율적인 부지를 추진하며, 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93년 상반기에 구성, 그 구체적인 계획을 95년까지 마련하고 96년부터 그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5. 외대중—장기발전계획위원회 부분은 별첨 1 참조
6. 단기학자사안은 별첨 2 참조
7. 위 사항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체 학생의 찬반투표를 거친) 총학생회와 협의한다.

1992년 11월 16일

총학생회장 한형곤 학생처장 박상분

이 강 혁

11일 협상안중 외발위구성 추가로 전격합의

합의안, 구체성 결여 … 총학, 재단견인에 한계

서울캠퍼스 학생측의 21일 동안의 전면수업거부가 지난 11일(수) 이강혁(법학과 교수) 총장, 한형곤(이태리어과 교수) 학생처장, 박상남(서양·노어4) 총학생회장 사이에 총 7개조항(외대발전위원회 구성 및 단기학자사안은 별첨)에 대한 합의와 조인이 이루어짐으로써 13일(금) 학생측 수업이 전면 재개됐다.

합의안 도출 안팎

11일(수) 저녁의 '일대비약'으로 불리우는 이번 합의서 전격통과는 다음날(12일) 노천극장에서 총학생회장의 합의안 발표와 도출과정설명으로 일단락됐다.

총학생회측은 14일(토)에도 각 학과 학년대표이상의 모임을 갖고 수업거부 기간동안의 평가를 가졌다. 하지만 참석률이 저조한 것과 앞으로의 합의서에 따른 대학당국 전인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번 합의안 도출에 대해 결말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먼저, 이번 합의안의 전문내용이 '외대발전위원회'구성부분만을 제외하고는 1차협상안(본보 592호 1면참조)에서 거의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는 부분이다. 이는 1차협상안을 전체 학생들에게 제시하였을 당시 대부분의 여론이 이를 받아들이지 말 것과 수업거부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을 표명, 그후 일주일동안 수업거부가 계속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안의 문항이 1차협상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총학생회가 이를 조인 이후 전체학생에게 발표한 것은 오류라는 점이다.

시양어대 복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체학생부표 필요. △재단의 확언필요. △공중여부 등의 반론도 상당부분 1차 협상안에서의 진척 미진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측은 일단 전체적인 학자 교양수준과 기층 원동력이 수업거부가 더이상 장기화될 경우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인 학자를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대학당국과의 협상내용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의 대선에 대한 학내 여론조성과 학생회 간부에 대한 선거 등이 치뤄지지 않은 점도 이렇듯 예상밖의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합의된 내용에 대해 대학당국과의 이후 마무리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는가에 따라 판도는 변화할것이라는 예상안도나오고있다.

우선 '학교발전을 위한 합의 사안'이라는 이번 대학당국과의 도출안이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점이다. 이는 재단이 합의한 내용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 지대하여 총학생회가 그동안 목표로 삼아온 '재단 견인'은 일정정도 한계성을 보였다는 지적이며, 이후 재단이 이에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시에는 총학생회의 발로 없이도 기층단위가 이를 문제삼을 것이라는 분위기에서 점작되는 부분이다.

합의안의 취약성

구체적인 합의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자곡동 그린벨트해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92년 11월말까지 구성한다고 되어있으나, 구성원 선임과정의 어려움과 각 구성원 주체들과의 모임결성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또한 구성원의 성향및 의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으로 총학생회의 이후 책임성이 가중되게 됐다.

'권한'에 대한 조항에 있어서는 '자곡동 부지의 사용방안'을 문구화하는 데 있어 '캠퍼스 부지사용 여다. 특히 학칙변경시에는 교육부로부터의 승인여부도 고려돼야 한다.

학칙으로의 명확한 삽입이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른 대학의 사례에서처럼 학내에서 특화기구를 신설한 경우에도 교육부의 승인이 없어 대외적인 공식 지위를 갖지 못한 점과 이러한 기구 및 구성원에 대한 신분보장이 해석에 따라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지적되는 부분이다.

2항의 각 캠퍼스별 특화발전부분은 용인캠퍼스 기층학생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전체 합의안을 통해 학생측은 4명이 추진위와 발전계획위원회에 참가, 서울·용인 캠퍼스 각각 2명의 대표가 참가한다고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측은 설명하고 있으나, 이전에 용인캠퍼스의 종합적인 의견을 통해야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의대와 부속병원의 설립에 있어서도 이공계열은 용인캠퍼스에 특화발전시킨다는 문구의 유권해석을 통해 입장정리를 할 경우 대학당국, 서울캠퍼스 학생측 대표간의 절정사항이므로 용인캠퍼스 학생측과 갈정대립을 불러 올 여지를 안고 있다.

앞으로의 해결과제

이번 합의안 도출은 그 내용의 구체성을 떠나 어찌됐든 획기적인 발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생을 포함한 학내 제주체의 자치권이 '심의'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21일간의 전면 수업거부에 '힘이 빠지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총학생회는 다음 연도를 책임질 총학생회가 올해의 성과물을 어느정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 재평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추세는 올해안으로 다음 연도 총학생회선거를 치룬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이러한 가운데 아직까지 대학당국, 재단을 상대로한 학자부의 중지부를 찍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현 총학생회가 어느 정도의 추진력을 가지고 12월 말까지 사업을 집행해 나갈 것인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 총학생회는 폭넓은 학내기반을 조성하고 학생측 학자권구단위 및 기층학자조직을 얼마나 공고히 조직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내년도 합의서 이행여부와 지속적인 학자수행의 성패는 판가름난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부>

외대중장기발전계획위원회 위상에 관하여

1. 외대 중—장기 발전계획위원회(이하 "발전계획위원회")의 설격
발전계획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동위원회는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발전계획기구로서 범외대인으로 구성되는 계획심의위원회와 학교보직자 및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계획작성위원회의 두개의 위원회를 갖는다.
2. 구성
위원장 : 총장
계획작성위원회 : 학교 처장단, 전문위원
계획심의위원회 : 교수4인, 학생 4인, 직원 4인, 동문 2인, 학부모 2인, 외대발전위원회 2인
3. 권한
가. 계획작성위원회는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및 최종안을 작성한다. 이를 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나. 계획심의위원회는 계획작성위원회가 최종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며 최종안에 대한 심의권을 가진다.
4. 발전계획 확정 과정
가. 계획작성위원회는 외대 중—장기 발전계획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중—장기 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을 심의하며 최종안을 마련한다.
나. 계획심의위원회는 위의 최종안을 심의 확정한다.
다.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안은 교수회의 의견을 거쳐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확정된다.
5. 제도화
위의 기구를 학교발전계획에 관한 특별기구로 내규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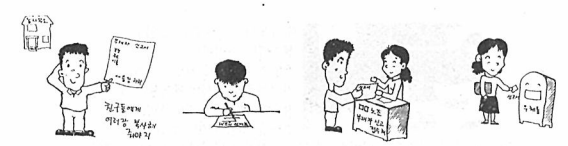
단 기 사 안

1. 도서관과 관련하여
—도서관 옥상은 건축구조상 영조물 설치가 불가능하다. 학교는 휴연을 위한 간이공간을 마련, 바닥을 정비하고 울타리를 만들어 확보한다. (93년 3월 이전까지)
—도서관 전산화계획을 제출하고 빠른 시일내에 전산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서관 자치위와 협의한다.
—2·3층 서고를 개방함고실로 운영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 시기 등은 도서관 자치위와 협의한다.
2. 종물패 연습공간 문제는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학내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노천지하에 마련한다.
3. 소방도로 공사와 동시에 소운동장과 테니스장의 정비(투스콘으로 정비)를 시작한다. 정문담장의 개선은 구체적 측량이 끝나는 대로 즉시 착공한다. (93년 중반기 예정)
4. 노천극장의 근본적 개선(누수방지 및 통풍)을 이번 겨울방학에 실시한
5. 1) 대학복지위원회를 92년 12월까지 구성한다.
그 구성은 위원장 : 총무처장, 부위원장 : 학생처장, 교수협의회 : 2인, 직원 : 2인, 학생회 : 2인
대학복지위원회는 교수, 직원, 학생의 소비활동 보호를 도모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회원의 복지증진과 교육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동위원회는 생활협동조합을 연구하고 93년 3월까지 외대 복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한다.
2) 92년 12월까지 여성용품 지원기구를 학생회관, 도서관, 사범대 건물에 2대씩 나머지 건물은 1대씩 설치한다. 여학생위원회가 관리를 담당한다.
3) 92년 12월까지 지동세탁기를 설치한다.
4) 식당 저녁배식 시간의 연장 문제는 학교와 식당지치위원회의 공동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학교와 유사한 조건(면적, 인력)을 수준으로 동일한 수준을 만드는데 공동 노력하여 11월 30일까지 결정한다.
6. 외대사랑 순찰대는 현 4명 6명으로 증원하며, 총무처와 총학생회는 공동관리를 포함한 제합리적 관리방안을 11월말까지 마련 실시한다.
7. 동계계절학기는 92년 2학기부터 실시한다.
8. 취업정보전산화는 93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며 효율적인 취업업무를 위하여 학생처의 기구를 93학년도 1학기까지 확대 개편한다.
취업대책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한다. 동 위원회는 총학생회의 취업대책에 관하여 협의한다.
9. 회칙 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외대 구성원의 논의를 통하여 개정안을 마련한다.
학칙개정위원회는 93년 4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한다.
10. 학교는 총학생회와 협력하여 이거스가 11월중에 발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6.3관련 학생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학교는 11월중에 대책위원회를 마련하고 총학과 협의하여 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귀찮다고, 권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1)부재자 신고서 작성 및 발송



①부재자신고서 수령(동사무소) ②신고서 작성 ③단체별 및 개인별 발송(주민등록지로)

2)부재자 투표방법

①추민등록지 선관위에서 투표용지가 본인에게 배달됩니다. ②지정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

부재자 투표를 꼭 합시다

지난 3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부재자의 투표기권이 100만표를 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100만 부재자의 참여여부는 대통령후보의 당락을 결정하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민주정부 수립은 부재자 투표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재자란 장기간(선거인 명부에 기재되고 선거인 명부작성 만료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를 떠난 사람으로 '선거당일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재자 투표는 일반투표일에 앞서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실시되며, 이를 위한 우편투표 용지는 12월 3~5일에 발송됩니다.

부재자 투표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구·시·군 또는 투표구선관위가 설치한 영외투표소에서 실시합니다.

단, 합정·오지 등 불가피한 경우는 기관·시설인의 별도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부재자 신고일은 11월 25일까지입니다.**

공정보도 촉구를 위한

언론감시단모집

"○○일보는 국민의 신문" "○○○는 국민의 방송, 국민과 함께하는 ○○○"

한결같이 신문이나 방송이 모두 "국민의" "국민과"를 주장하지만 진정 국민의 언론이 있습니까?

이제 언론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서 언론의 왜곡, 굴절된 현실을 바로 잡읍시다.

모집대상 : 참언론을 바라는 시민 학생들 누구나
활동내용 :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도언론의 파행보도를 바로잡는 현실가능한 모든 실천활동을 전개한다. 구체적으로 언론 모니터활동, 왜곡 편파 불공정보도에 대한 항의전화, 항의방문, 대국민홍보전등
모집기간 : 수시로
일 정 : • 11월 25일경 결단식
• 이후 비디오 상영, 언론 문제에 대한 강좌 및 토론회
• 긴급한 사안이 발생시 6시간 또는 12시간이내에 모일수 있는 준비(비상연락망 구축)
문의및 접수 : 서울시 마포구 아현2동 336-16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전화 365-0325/6, FAX 392-5289)

사 설

대학 본연의 위상으로 다가서자

한없이 넓게 펼쳐진 대학 캠퍼스의 푸른 잔디위에 늦가을의 햇볕을 즐기며 독서에 여념이 없는 남녀 대학생들. 더없이 넓은 체육관안에서 상기된 얼굴로 운동에 열중하고있는 젊은이들. 두툼한 교재를 옆구리에 끼고 고색창연한 고딕식 도서관 건물사이를 오가는 학생과 교수. 강의실 밖으로 흘러 나오는 교수분들의 카랑카랑한 목소리.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은채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교수연구실 창밖으로 흘러나오는 불빛… 언제가는 한국외국어대학 교정에 이런 풍경이 정녕 나타나게 될것인가?

그러나 오늘 한국외국어대학 교정은 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노정하고 있지 않는가? 차마 필설로 옮겨놓기 조차 부끄러운 대학교정이다. 쓰레기가 교정을 뒤덮어 악취가 진동한 한여름이 지나갔는가 했더니, 지난 몇주 동안은 이에 강의실마저 폐쇄되었던 기막힌 우리 대학의 현실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무릇 대학캠퍼스란 숙연한 분위기가 풍기는 학문의 도장이어야 할진대 지금 이대학 교정은 가히 시장바닥을 방불케하는 무심서, 무절제의 표본이 아닌가? 누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한국외국어대학에 몸을 담고 있는 모두가 이런 사태로까지 치닫은데 대한 책임을 져야할은 더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다.

우선 대학당국이나 학생들이 다같이 명심해야 할것은 대학이란 원천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첫째, 대학이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도장이라는 점이다. 대학이 갈짚을 잃고 방황할때, 이나라 이민족의 앞날은 암담해지며, 젊은이들은 허공을 헤매게 되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사회는 조만간 퇴멸의 길을 걷게될 뿐이다.

둘째, 대학이란 눈앞의 이윤추구 보다는 숭고한 학문의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는 기업체가 아닌 육영기관이라는 점이다. 학문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모름지기 대학은 학문의 참다운 가치를 이해하는 자들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셋째, 대학은 기술자가 아닌 원만한 인격자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심오한 학문의 진리가 아닌 얄팍한 한두가지 기술을 익히기 위해 대학문을 두드린 자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기술학교나 전문학교를 찾아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것이다. 대학은 단어 몇자를 더 익히거나 외국어 몇마디를 더 익히기 위해 존재할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학의 존재이유가 이러할진대, 학생들은 강의라는 대학교육의 절대명제를 거부하는 어떠한 경솔한 행위라도 해서는 안된다. 강의를 거부했다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대학생임을 부정한 것이나 다를바 없다. 대학에서 강의가 중단된다는 것은 살아 숨쉬던 인간이 호흡을 중단하는 것과 하등 다를바 없는 것이다.

한편 대학당국은 학생들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제까지는 대학경영방식을 과감히 수정 또는 폐기해서라도 균형있는 종합대학으로의 발전을 모색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급변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한국외국어대학만이 현실에 안주할 수는 없지 않는가? 변화를 싫어하는 자들을 역사는 항상 외면하지 않았던가? 변화를 수용하는 자만이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젊은이들의 치솟는 열정과 기백을 학문을 위해 불사르는 믿음직한 외대인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가 달라는 것이다. 한편으로, 대학당국에 부탁하고 자 하는것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자랑스런 외대인이라는 뿌듯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되찾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경쟁에서 앞서는 자(primus inter pares)만이 살아 남는다는 적자생존의 냉엄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글을 기다립니다

외대인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흡산의 소리'는 작은 소리, 서툰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알고 싶은 내용, 대학당국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외대인이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곧은 목소리들을 2~7매의 원고지에 담아보세요.

채택된 글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민주적으로 검증하여 주인의 자리를 찾고 싶다

—서울캠퍼스 파업철회과정에 대하여

10월 12일 목요일 최종 집회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자. 외대 사람의 열정을 가지고 예비역들이 조직적으로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총학생회는 감동적인 발언으로 일관하면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피하며, 합의서를 통과시킨 후에, 집회를 정리하였다. 일요일 밤에 집에서 마감 뉴스를 보는 데, 어느 회사의 노·사간 최종 합상안 타결 보도가 나왔다. 노조 집행부가 들고 나온 최종 합상안을 전체 찬·반 투표에 붙인 결과 52%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고 한다. 가장 민주적인 학교에서 우리의 최종 합상안이 총학과 중운위란의 찬성으로 집회를 열어, 1·2학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단지 열광적인 박수 소리로 통과되었다는 현실이 나에게 실망을 안겨 준다. 합의안에 찬성하며 하나의 성과로 인정하는 학우들이 있다. 또한, 반대의 위치에 서있는 학우들도 있다. 흘러 나온 얘기에 의하면 -물론, 집회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지만-지도부에서는 집회에서 질문도 받지 않고 투표도 하지 않고 통과시킨다는 내부적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한다.

물론 소수의 중앙 간부들의, 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한다. 단지 그들의 의견이 묵살되었을 뿐이지만, 합의서 자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의 투쟁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을 것이다. 얼의로써 시작된 수업거부가, 박수 소리로 정리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이중성을 느낀다. 우리는 정확한 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상태로 정리된다면 우리는 내년의 투쟁을 준비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학생들도 이 땅의 구성원이다. 우리 모두는 민주화의 그날까지 염심히 담려가야 한다. 사회의 부조리를 바꿔 보려는 우리 행동의 첫 출발점은 바로 학교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학교에서 지난 목요일, 누가 보아도 비민주적인 사태가 다수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실현되고 말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합의서와 수업거부 해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인준 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 검토한 다음 합의서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왜? 바로 우리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며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광택 서양·노어2>

흡산의 소리

□열악한 유통구조로 일본만화에 침식되어가는 우리만화

이 땅이 뉘 땅인데…

며칠전 서점에 갔다가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일반 서점에서 까지 일본만화가 판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만화가 일본이나 프랑스등의 만화선진국에 비해 뒤처져있는 원인중의 하나가 대본소(만화방) 위주의 유통구조라고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국내작가들의 몇몇 작품들이 서점판매용으로 제작되어 일반독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것은 그 만화의 질적 수준의 문제를 떠나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내가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만화들을 보고 놀란 것은 우리나라의 만화보다 월등하게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늘어선 일본만화들 때문이었다. 국내만화가 서서히 서점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만화관련 잡지사나 출판사들이 앞다투어 어린이나 청소년층에 인기가 높은 일본이나 홍콩의 만화를 사들여오고 있는 것이다. 그 가격또한 3천원대여서 어린이들이 쉽게 수십권에 이르는 시리즈물을 살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깔끔하고 현란한 일본만화, 선풍적 인기를 끌고있는 오락을 주제로 한 홍콩만화라는 이유로 넋놓든듯 팔리는 현실이다. 겉장은 물론 내용까지 칼라로 꾸며져 어린이들의 눈을 현혹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지금까지처럼 대본소 한 곳에 한 질을 갖다두고 수천명이 빌원, 2백원씩 내고 들려 보는 유통구조로서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밀고 들어오는 만화선진국들의 공세에 우리나라의 만화는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벌써 그러한 영향은 많은 어린이 만화잡지에서 우리만화가 저질일본만화화하는 경향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만화로서의 특징과 만화의 교양적인 성격을 잃어버리고 일본만화의 외면적 경향만을 좇아 그들을 흉내내는 문화의 사생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문제 또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무분별하게 수입, 혹은 해적판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자들과 이들의 수입허가를 내주는 관계기관의 각성이 필요할 때이다.

· 서영선 인문·철학4>

사노라면(?)

<박신일 서학·독어1>

올바른 성의식에 의한 여성관 정립을 바란다

언어학과 여성학 소모임 해방치녀에서는 왕산 남녀학우(남 : 210 여 : 217)를 대상으로 9월 19일부터 23일에 걸쳐 성, 사랑, 결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①성별에 따른 남녀의 성격적 특성 ②대학내 술자리 문화에 대한 의식조사 ③매매춘에 대한 의식 조사 ④성폭력에 대한 의식조사 ⑤혼전 성관계에 대한 의식조사 ⑥결혼·가족에 대한 의식조사로 세분화된다.

①소재 같은 경우 성별구별없이 남녀의 성격적 특성이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②소재의 경우는 학내에서 음란가요를 접해본 경험이 남 : 65%, 여 : 46.8%, 그중 일반 남학우가 71.2%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음란가요를 주동적으로 불렀던 것으로 나타나고, 여 : 76%, 남 : 60%가 이러한 술자리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대학내의 술자리 문화가 반드시 바뀌어져야할 수치상의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③소재의 경우 예비역의 50%이상이 매매춘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대학내 군사문화의 영향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고 있으며, '선·후배와 어울려서 매춘을 했다 : 32%'의 수치는 매매춘 행위가 대학내에서 어느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④소재의 경우 응답한 전체여학생의 50%가 언어적 추행을 경험했고 대학내에서나 전철, 버스등에서의 기벽은 폭행도 42.5%나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강간, 경제적 성추행도 각각 0.6%, 4%의 부시할 수 없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심층면담에서 대학내에서의 언어적, 신체적 추행은 주로 남자선배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대부분의 여학우들이 귀결되는 장도에서 피해를 당한 여학우 조차 이러한 행위들을 성추행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의문이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다. 성추행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은 대체로 수동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지 1%만이 신고한다고 대답했는데, 그것은 이러한 종류의 추행이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나며, 추행이 갖는 억명성, 또 신고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다는 인식, 귀찮음, 창피함 등으로 인해 미치개한테 물린셈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아직까지 순결이데올로기가 여성을 지배하는 현실에서 피해자를 이해하고 감싸주려는 노력은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이나 이것이 사회적 문제임을 잊지말고 당당하게 피해자의 최소한의 보상을 위한 요구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⑤의 경우 연애중일때 행동경향은 남 : '책임감이 더 강해진다(55.7%)' 여 :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게된다(53.6%)'가 각각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혼전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여성은 32%에 불과한 반면 남성은 73%로 나타나 순결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생각이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 강하게 존재함을 말해준다.

성과 사랑의 미래는 남녀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정립하는가, 즉 기존의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가 성과 사랑에 부여한 '여성적', '남성적'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한 문화의 창출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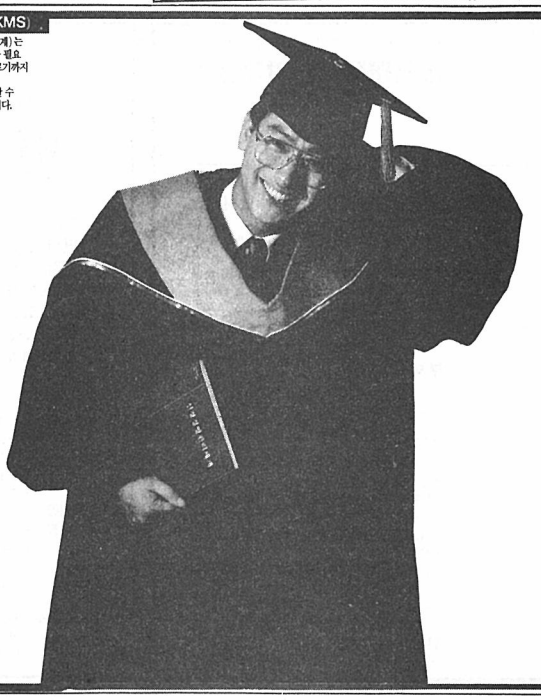
⑥에서 결혼의 형태에 대한 생각은 남여에게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체로 연애결혼을 선호하고 있지만 독신을 생각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독신을 원하는 이유에서도 여성은 '결혼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이 싫어서' 남자는 '후자만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의 경향으로 밝혀졌다.

이번 설문조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문화, 성인식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여성자신도 여성문제에 대한 자각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남녀모두의 올바른 성여할 인식으로 성어암구조를 깨트려 나갔으면 한다.

· 박현주 인문·언어4, 해방치녀 ·

좋은기업, 그곳엔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SKMS)

SKMS (Sunkyong Management System, 선경경영관리체계)는 학문적, 이론적인 경영기법이 아니라 실제 기업경영을 통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골라 회장에서부터 신입사원에 이르기까지 전선경인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경영관리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선경의 기업구성원들은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창신, 합리, 인간중심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화공학을 전공한 신입사원 이태근씨가 요즈음 친구들에게 경영학박사로 통하는 이유"

대학에서 경영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화공학도 이태근씨 졸업후 유공 고분자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입사할때까지만 해도 자신은 경영과 무관한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 연수도중 얇은 책자속에 담겨진 SKMS를 접하게 되면서 경영이라는 것이 이론속에 파묻혀있는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현실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조별토의와 질의응답 그리고 회장과의 대화를 통해 SKMS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그러한 생각에 더욱 확신을 갖게되었고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자신을 비롯한 신입사원 모두를 초급경영자로 인정한다는 말에 조금은 놀라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흥미를 느낀 그가 요즈음에는 대화중에 경영에 대한 나름의 논리를 곧잘 펴곤해서 주위친구들에게 경영학박사로 통하기까지 합니다.

SUNKYONG
鮮京그룹

◇본교 교수·강사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교수진 확보에 집중 투자해야

흔히들 대학교수(강사포함)를 명예직인 직업이라 한다. 해박한 지식과 교양은 가지고 있으나 정치가처럼 권력지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생한 말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

교수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함께 사고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교를 비롯한 한국 대학의 경우 과다한 수업부담으로 인한 연구열 상실과 주입식(강연식) 위주의 일방적인 수업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시간강사(이하 강사) 또한 대학강의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미조차 안되는 부족한 강사료로 인해 연구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

여기서는 본교 교수와 강사에 국한하여 효율적인 강의를 받기위해 어떤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지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교수 부분

현재 본교는 1만2천7백여명의 재학생에 3백23명의 전임교원(전임강사 포함)을 확보하여 교수 1인당 학생비율은 39대 1 정도이다. 먼저 교수들이 가장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고정연구실 확보이다. 이는 서울캠퍼스에서 제기되는 공간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는데 현재의 연구실은 쾌상조차 비좁게 느껴질 정도이다.

특히 해마다 학기초 보직이동에 따른 연구실 이동(일명 보따리 장수) 현상은 올해도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 모 교수의 조교는 "변변한 연구실 하나 없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교수님을 보면 처량하기 조차 하다"며 교수님의 처우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공간확보 및 재배치를 통해 고정연구실확보 및 단대별, 학과별 교수연구실의 집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의시간 배당의 경우 법정시간인 주당 9시간을 지키고 있는 교수는 30%미만인 1백여명 안팎이며 15시간이상 강의를 하는 교수도 58명이나 된다. 법정시간인 9시간을 초과 할 경우 지급되는 '초과 시간 강사료'도 시간당 1만원(교수기준) 수준이어서 극히 미약한 상태이다. 특히 강의장소가 서울 용인 양캠퍼스와 대학원까지 이르는 상황은 육체적, 시간적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문제로 지적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여 학교에 건의할 수 있는 교수협의회에 대한 인식도 낮아 현재의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사 부분

강사의 경우 현재 전체 학생의 강의시간 6천 6시간(92년 1학기 기준) 중 40%선인 2천3백여 시간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교육법에 규정된 강사의존율 30%를 훨씬 넘어선 수치로 교양과목일 경우 74%에 이르며 부전공 강좌 또한 68% 정도를 강사에게 맡기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에 대해 신분보장이 안됨은 물론 교육자적 조건의 상대적 상실을 불러와 강의의 질적 하락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제도의 근본 취지가 '소속교수로서 강의하기 어려운 학문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 이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최신 이론이나 특수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접하게 하기 위함'임을 감안할 때 강사제도 운영의 파행성은 더욱 커진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강사 채용 경향이 본교 교수로서 부족한 분야의 보충 수단이 아닌 학교 경비 절감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적은 강사료의 지급 현상은 '강사는 직업인이 아닌 교수가 되는 과정'으로 인식하여 강사료가 낮더라도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강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역이용하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용인캠퍼스 교무과장 이진섭씨는 "현재 강사료의 지급 수준이 낮은 것은 인정하나 이 문제는 한국 대학 전체의 문제로 본교는 다른 학교와 비교할 때 뒤쳐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이야기 한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눈치보기식의 운영에서 벗어나 본교가 선구자적 입장에서 교수충원으로 강사의존도를 낮추어야 함이 급선무이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강사료인상과 신분보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은 기자>

전임 교수 확충으로 강사제도 본뜻 살려야

서울, 합의서 내용 둘러싸고 논란

예비역 중심 민주적 절차통해 합의서 수용해야

총학생회 이후 구체적 투쟁계획 수립이 중요

지난 12일(목) 대학생총학생회의 계속된 협상끝에 최종합의서가 도출되면서 21일간의 서울캠퍼스 파업이 정리되었다.

가합의서가 발표된 지난 6일(금), 합의서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이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협상을 재개, 12일 최종합의문을 결정했다.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곡동그린벨트해제추진위의 구성과 △그린벨트 해제후 시용용도(캠퍼스부지포함) 를 결정한다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었다. 또한 용인이전계획철회와 관련해서는 △서울-인문계열, 용인-이공계열로의 복학발전방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날 오후2시 노천극장에서 열린 '외대인권리모 3대회'를 통해 비준된 계속된 '마라톤협상'을 마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박상남(서양·노어4) 군은 "합의서에 성과물이 있다면 이를 실천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계가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군은 "우리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말하면서 이후 '외대발전운동'을 계속해서 전행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날 보고대회에서도 지난 6일(금) 가합의서가 발표된 후 내용에 문제제기에 이어 최종합의서에 대한 발론이 계속됐다.

예비역·복학생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몇가지 이의들을 다시 제기했는데 그 내용은 합의서 인준과 파업철회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점과 가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거의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총학생회장의 결정에 대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광택(서양·노어2) 군은 "인준절차와 파업철회투표를 삭제한 결정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 몇사람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비민주적인 처사이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그동안 '외대발전운동'의 최대 쟁점사안이었던 자곡동으로의 캠퍼스이전에 관련된 사항들이 '캠퍼스부지로 사용한다'는 협상 원칙에서 어긋나 사용용도를 그린벨트 해제후로 미뤄놓은 합의서의 맹점에 대해, 오히려 앞으로 전개될 캠퍼스이전추진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서양어대를 중심으로 결집된 복학생, 예비역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총학생회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후 '예비역·복학생협의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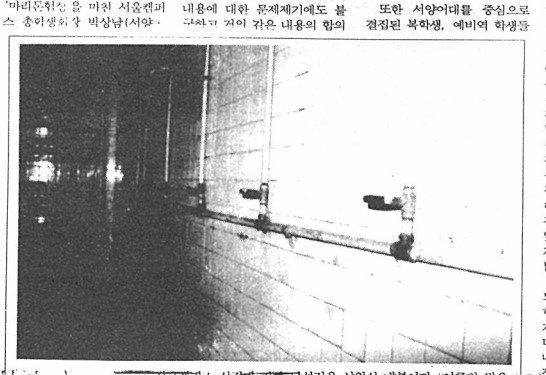
한편 '외대발전운동'신상에서 이러한 반대입장들의 조심이 가시화 되고 있는 점에 대해 가장 단결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예비역·복학생협의회 구성을 추진중인 전영우(동양·이문과)군은 "합의서의 재완적인 평가, 절차상의 비민주성을 척결하기 위한 노력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주장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수많은 시행착오끝에 도출되는 '외대발전운동'만이 올바른 내용성을 담보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각 단위별로 92년 하반기 학지투쟁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이에 대한 대안을 각 집회를 통해 일러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박상남 총학생회장은 "올바른 상황적 판단에 의해 올해의 투쟁을 수용하고 이후의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의견의 분분함을 수습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공개간담회도 개방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단결력이 요구되는 반면 풍부한 의견개진 또한 중요한 현 시점에서 취에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을 계속된 대화의 장을 통해 절충, 정립해 내는것 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단결 분열의 수습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나아가 이후 외대발전운동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소수의 의견도 외곡없이 수용할 수 있는 대화장구확보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화 기자



초점

자곡캠퍼스 상강대 지하 담성전용 사위실 바부이다. 여름철 많은 생들이 이용하는 이 곳은 요즘들어 관리 소홀과 시설 낙후로 인해 이용하는 학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온수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벽쪽으로 전기가 흘러 누전의 위험이 있는 등 학생들 사이에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캠퍼스 통틀어 세 개 밖에 없는 사위실이 그 시설마저 열악해 이후 시수공사와 사위실 증설등이 시급하다.

이현재 기자

반의자

금권의 죽마고우, 관권

▲12월 18일.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날이다.

이날은 민주를 원하는 다수 국민에게 민주정부수립의 기쁨을 안겨줄 것이고, 7천만 겨레에게는 통일의 희망을 안겨주는 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염원과는 달리 도처에 흐르고 있는 사회분위기는 그리 좋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거대당의 한 총수가 지구당대회에서 밝힌 바 대로 "중립내각으로 관권선거의 위험은 없어졌으나 계속되는 금권선거는 공명선거를 위협한다"는 사실(?)은 과연 올바른 지적인지 살펴볼 일이다.

87년 대선당시 우리는 '국민들은 안정을 택했다'라는 일간지와 방송들의 연일 보도 속에 한사람의 대통령을 맞이 했다.

공교롭게도 투표이전부터 각 매체들은 '결과에 승복하는 선진한국인이 되자'는 말들을 국민의식 속에 심어놓았다. 그리고 대통령이 뽑히던 12월17일, 구로구에서는 관권선거에 항의하는 민중들을 무차별 진압하여 애써 '안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제 5년만에 다시 선거를 치루게 된다. 그렇지만 도처에서 공정선거를 하자는 국민의 열망과는 부관하게 관권·금권선거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역 광장에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전시회가 벌어지고 있다. 주관하는 곳은 이름만으로도 무시무시한 한기부이고, 내용은 70년대에나 가능한 '간첩들의 사용용품'이다. '인과가 가장 많이 몰리는 역전에 이러한 전시회를 갖는 것은 애써(?) 홍보하려는 특정당과 간첩사이의 밀애를 알리고자 함이다.

그리고 지금 검찰은 재야, 학생들에 대해 편파적인 선거법 위반을 적용, 계속되는 내사와 구속을 감행하고 있다.

단지 금권선거만이 우려되는 대선은 아닌 것이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4천만의 의지는 새로와야 한다. 단지 강경차원의 '인물택하기'는 이제 필요없는 일이다. 지난 대선시기 관상에 혹하여 한표를 던졌던 이들도, 안정을 택했던 대다수 중산층으로 분류됐던 이들도 이제는 '변화'를 위한 큰 걸음을 위해 한표를 행사해야만 한다.

서울캠퍼스 모 동아리의 공연 제목이 '당신도 수배 중입니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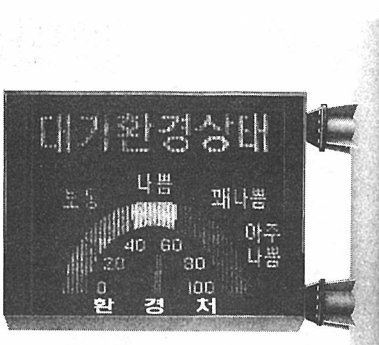
정권교체를 통한 민주정부수립을 원하는 이들에게 다음 달 18일까지는 수배중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영환

■1990년 7월 입사
마북리연구소 엔진설계부 설계 2과
이 주한

이주한氏의

"지우고 싶은 대기 현황판"



출근길에 마주치는 대기현황판

어제 저녁, 6개월 만에 만난
대학 동창과의 한 잔 때문에
오늘 아침은 유난히 서둘러야만 했다.
통근버스가 시정앞을 지나칠 무렵,
어느날처럼 눈에 들어오는 대기현황판.
"현재의 대기환경상태 — 나쁨"

용인군 마북리의 상쾌함, 그리고…

복잡한 시내를 벗어난 통근버스는
용인, 마북리연구소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
이곳에서 나의 업무는 엔진설계와 제어부문…
그래서 매일 지나치는 대기현황판의 '나쁨'이란
글자가 머리속에 맴도는 것도 바로 자동차엔진과
관련된 나의업무 때문인지도 모른다.

린번엔진 개발성공, 그 짜릿한 희열이후…

입사 후 3개월. 나는 작은 출발을 시작했다.
대기공해를 줄이는 초저연비 린번엔진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비록 내가 한 일은 미미했지만 대기오염은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뿌듯함이란…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나쁨'을 가리키고 있던
대기현황판이 그때로 남아 있었다.

현황판 수치가 고쳐질 그날을 위하여…

출근길에 마주치면 늘 찜찜했던 현황판 수치.
하지만 이러한 나의 노력과 작은 보탬들이
하나둘 쌓여 빛을 발하게 되는 날,
거리의 많은 차들이 무공해 차량으로 바뀌고
대기현황판의 수치도 고쳐질 수 있으리라.

좋은 환경, 좋은 차
HD 現代自動車

현대 25주년 HYUNDAI 인간·지구에 꿈·행복을…③

대선과 정권교체 Ⅳ

청년학생의 한표는 정권교체의 첫걸음

참석 : 김동완(국민회의 대변인, 윤석양 후원사업회 회장) 이강민(전대협 선전국장)
사회 : 최장훈(전대기련 정책국장)
정리 : 정지혜(본보 사회부 기자)

사회 : 이번 선거는 예년과는 다른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92년 대선은 국민들의 어떠한 요구를 구현하는 장이어야 하는지부터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김동완 :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정권에 불만세력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물가는 40%, 50%씩 오르는 데 임금은 5%인상을 넘어서지 못하니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농민들은 피폐지게 농사지은 쌀을 국가가 사들이지 않아 깊은 한숨만 쉬고 있으며, 도시빈민들은 대책없는 집철거, 노점상 철거로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으니 불만세력일 수 밖에 없지요.

이렇듯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대선에서 바라는 것은 단 한가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민중들에게는 오로지 정권교체가 유일한 희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강민 : 이러한 민중들의 정권교체 요구가 반영된 것이 전국연합의 '범민주단일후보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권교체를 실현하자는 뜻있는 의지를 모아준 민민운 진영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힘있는 민민운 진영의 단결이 생명입니다. 함의하지 않는 각 지의 의견들을 고집하여 서너가지 주장으로 갈리지는 민민운 진영의 모습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사회 : 지난 87년 민민운 진영이 보여준 대선투쟁의 소중한 경험은 지금도 무척 유의미 할것이라 여겨지는데…. 그 당시 청년의 역할과 대선투쟁의 성과와 오류를 정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강민 : 87년 6월항쟁은 청년들의 희생과 용기가 일구어낸 투쟁이라는데 그 누구의 이의를 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대생이었던 권인숙양의 성고문, 박종철군의 고문치사 그리고 이에 항의하던 이한열군의 죽음은 그들이 청년학생이었다는 점에서 청년학생들의 뜨거운 투쟁이 있었고 그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시민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김동완 : 그런 투쟁의 과정에서 6·29도 나오고 국민운동본부도 설치되기는 하였습니다. 이러한 청년의 투쟁으로 맞이한 대선은 그러나 사전 준비가 없었고 아권단일화를 너무나 과신하고 있다가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민민운 진영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던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사회 : 지난 87년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년학생들은 대선투쟁에서 어떠한 역할을 가진다고 보시는지요.

김동완 : 솔직히 말씀드리면 87년 대선을 앞두고 시작된 분열은 지난 5년간 거듭하면서 또다시 준비를 못하고 대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입장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수 있는 곳은 학생들이 뭉쳐있는 전대협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가장 꾸준히 대중투쟁을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서울

교육대개혁을 정책공약으로 만들고 제도화할 수 있는 투쟁을 벌여야

어떻게든 기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청년 학생의 가장 중요한 투쟁

사회 : 청년학생들의 실천이 더욱 중요한 시점인 이 때에 언론을 위시로하여 일각에서는 청년학생들에게 정치허무주의, 냉소주의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학생운동은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민 : 지금 전대협은 그간의 투쟁의 성과들을 모아 전총련을 건설하려 하고 법청학련 결성등 통일운동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3천여명이 모여서 전횡했던 전대협 출범식은 8만여명이 참가하는 대학가의 최고행사로 굳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전대협은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운동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학생운동의 퇴보, 정치허무주의 유포는 정권에 기생하는 언론의 고의적인 왜곡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고도성인 여론조작이 아닌가하고 생각도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광수 교수의 구속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퇴폐문화에 대한 검찰의 강경한 대응이라기 보다는 대학의 교수, 대학인을 모두 퇴폐주의와 향락주의에 물들어 있는 곳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학생들의 주장의 파급력을 막아보자는 속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 : 얼마전 반민자당의 글을 실었다는 이유로 '노보'편집자가 구속되고 '당선가능한 야당을 찍어주자'는 '일하는 사람들의 대선참여 운동본부, 공동대표 오순부씨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를통해 드러났듯이 정권은 정치적 허무주의, 냉소주의 유포들을 통한 심리전뿐만 아니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법'인 '선거법'등을 통한 제도적 탄압을 하는 계층이 청년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운동을 무력화하고 지지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 바로 사립학교법과 교수임용제 등입니다.

청년학생은 학문을 다양하게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조건을 만드는데 토대를 이루는 사립학교에 대한 올바른 정책과 교수들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대협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3당 후보 교육공청회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교육대개혁을 제기하여 정책공약으로 만들고 꼭 제도화 할수 있도록 하는 투쟁을 힘있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대학제도 개선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김동완 : 이번 대선은 50만표의 차이로 승리의 향방이 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야도 절대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올바로 관통되기 위해서라도 표 만드는 운동과 표 지키기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올 대선투표일은 청년들에게 금, 토, 일 3일간 연결되는 황금연휴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11월25일부터 명단작성에 들어가는 부재자 신고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든 기권을 막는 것이 청년들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투쟁이며 그 다음이 황관인 활동으로 부정선거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선거는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사회 : 마지막으로 청년학생들이 어떠한 생활자세를 가져야 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 이번 대선을 앞두고 사람들의 정서가 비슷하게 모아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너무 주장하거나 교육시킨다는 자세,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들어주고 존중하고 우리가 아는 걸 가족이든, 친구이든, 모르는 시민이든 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길 바랍니다.

이강민 : 얼마전 국민회의에서 내놓은 다섯가지 지세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번째가 총동원, 총결집의 자세입니다. 두번째가 전원참여, 전원투표의 자세입니다. 세번째가 대중적 운동원칙 구현의 자세입니다. 네번째가 겸손한, 당당함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주성, 창조성 존중입니다.

청년학생들이 이 다섯가지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한 것인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

네번째/농민, 도시빈민 개혁

위기의 농촌

지금 우리의 농촌은 급격한 이농으로 영농주체가 없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91년 12월 현재 전국의 농가수는 1백70만2천 가구로 90년말보다 6만5천가구가 줄었고 전체 농가의 83.6%인 1백47만7천가구가 농사의 대를 이을 수 없다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90년의 경우 농가 실질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의 80%밖에 안되게 됐으며, 도·농간 소득격차는 확대되어 부채농화·빈농화되고 필연적으로 농민의 생산수단에서의 분리를 낳았다. (90년 현재 1만4천ha가 휴경지, 이는 전년도 대비 2배의 증가)

무분별한 농산물 시장개방은 농업의 위축과 이농을 가속화시켰다. 현재도 농업생산기반이 날로 취약해지고 있지만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농산물 부문이 타결될 경우 농업생산기반의 붕괴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농업 발전정책을 펴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발전을 위한 투자규모를 매년 정부예산의 15%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농어촌특별회계'를 신설, 자금규모를 최소한 연간 2조원 이상으로 한다. 이는 매년 주세의 일정비율을 농업발전특별회계로 편입시키고 수입농산물 및 가공식품부가가치세 전액, 수입관세 전액, 판매수익금 50%이상, 주요식품 국영부역 이익금 전액을 농업투자재원으로 확보토록 한다.

핍박받는 도시빈민

도시빈민의 주거지역은 도시화 진전에 따라 땅값이 비싸지면서 재개발 대상이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빈민재개발이 이윤추구만을 위해 대형아파트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로 세입자와 낮은 소득가구로 구성되고 있는 도시빈민은 살 곳마저 잃어버리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정책, 임시직·여성 노동 보호

농산물은 전량수매 원칙으로, 농지는 농민에게만

농업정책의 허구성

정부의 농업기계화정책은 기계화 영농단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81년부터 연평균 3천개씩 91년말 현재 3만2천여개소의 기계화영농단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기계화영농단 명의로 구입한 기계는 사유화되고 경지면적협소, 밭의 경지정리 미약, 벼농사 중심 단작 농사로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농업인구노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을 메울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농가부채만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대개혁을 위하여

먼저 농촌경제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정에 기초식량에 대한 비교역적 품목을 관철시켜야 한다. 만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예외없는 관세와 정책이 타결된다면 국회비준 동의를 부결시키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하여 쌀 등 기초식량작물에 대해 가격예시를 하며 생산된 농산물을 전량수매토록해야 한다. 현재처럼 정세기획원에 의한 일방적인 수매량, 수매가 결정은 결국 농촌을 더욱 피폐화하고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악순환만을 거듭하게 할 것이다.

쌀수매가 경우는 생산비에 근거하여 농민의 소득보장이 되도록해야 하며 수매가 결정에는 농민대표가 참여,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을 법으로 제도화하며, '농축산물가격보장기금'을 신설토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규모 창고와 농축산물처리장, 가공시설을 산지에 설치하고, 면단위별로 종합유통시설을 설치하는 등 유통체계를 개혁하고 농지는 생산농민과 농민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농지의 90%이상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전하고 농지나 산지를 무기강화하는 것이나 골프장화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토록 한다.

6공정부는 주택2백만호 건설을 최대 치적으로 자부하고 있으나 사실 정부에 의한 공공부문 주택건설계획은 1백만호에 불과하다. 이 중 민간부문 건설계획은 초과달성되었지만 정부가 책임져야할 공공부문에선 목표량의 20%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국가재정에 의한 저소득층 대상 주택금융제도로는 유일하게 전세금 융지제도가 있다. 7백만원 이하 전세입자에게 3백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5%, 2년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며 약2만 가구분인 6백억이 3차에 걸쳐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평균 전세보증금이 1천5백만원이 넘는 현실적 조건에서 7백만원 선의 기준은 대상자를 너무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빈민을 위한 개혁

우선 도시빈민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용건설노동의 하청구조를 개편, 공영화를 실시 ·연 2백일 이하 노동에 대해 생계비 보장 ·임시, 일용노동 중에 생긴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 인정 ·노동력 폐질화 대책으로 개인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실시 ·여성노동과 연소노동보호 ·임시직, 일용직 및 영세자영업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인정 등을 실시해야 한다.

안정적인 주거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주택정책을 실시하며 도시빈민이 쫓겨가지 않는 재개발을 이뤄야 하겠다. 또한 저소득층 세입자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전세금 융지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 주택금융제도로 개선토록 해야 한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은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로 하고 국가 책임아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 생업융자에 있어서도 현 융자한도액인 4백만원을 대폭 인상하여 실제적인 자활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연리6%는 대폭 낮춰야할 것이다.

사회부

글실은 차례

1. 대선의 의미
2. 역대대선 고찰
3. 민족민주운동의 현황
4. 기획좌담—대선에서 청년학생이 할 일

보론1.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와 올바른 선거관
보론2. —타국의 선거에서 얻는 교훈

제10회 외대학술상·제30회 외대문학상 작품 모집

도전하는 오늘, 변화하는 내일

시집가는 누이에게

제29회 외대문학상 시부문 당선작

외대의 문학혼은 잠들지 않습니다. 진리를 갈구하는 외대인들의 노력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노력의 결과물들을 기다립니다.

마감일이 연기되었습니다.

1. 모집분야
1) 제10회 외대학술상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 3개 부문
(원고 80매 내외)
2) 제30회 외대문학상
시(3편 이상)
소설·평론·희곡·번역(원고 70매 내외)

2.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

3. 제출처
외대학보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전화(서울 : (02)961-4152, 용인 : (0335)30-4112)

4. 마감일
12월 3일(목)

※순수창작품에 한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외 대 학 보

□남아메리카 발견 500주년 기념 강연 정리

진출과 침략, 역사의 평가는?

신대륙 발견후 스페인 · 포르투갈, 남미분할조약 체결

임란시 방한한 스페인 신부, 한국을 서구에 처음 알림

외대논단

박 철
<본교 서반아어과 교수>

스페인과 동양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나 에스트라본, 혹은 세네카의 시대에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스페인 태생의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그의 저서 '자연론'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스페인의 해안과 인도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아마도 순풍을 만난다면 며칠의 항해로 충분하리라."

그후 12세기에 벤자민 뚜델라가 스페인 사람으로는 최초로 동양을 여행한 후 그 기록을 남겼으며, 더 나아가서 13세기에는 마르코 폴로의 '지팡구'(日本)에 대한 기록으로 당시 유럽인들의 동양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크게 자극하였다. 1404년 까스띠야 왕국은 중앙 아시아의 사마르칸트 지방으로 사절단을 파견한적이 있는데, 이때 이들로부터 중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높아져 가던 동양에 대한 관심을 현실로 달성시키기 위해서 콜럼버스는 1492년 동양의 땅 '인디아'를 발견하기 위한 항해를 계속한 끝에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도 그곳이 인디아라고 믿고 있었다. 당시 콜럼버스는 징기스칸에게 전달할 편지도 준비하였으며, 또한 그곳의 원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아랍어를 할줄 아는 유태인 루이스 데 또레스를 동반하여 갔는데, 그가 신대륙에 도달해 처음으로 인디오에게 한말이 바로 아랍어였다.

당시 세계는 교황 알렉산더 6세의 교서에 의하여 대서양상의 까보베르데 섬에서 서쪽으로 370 레구아를 기점으로 양분되어 그 서쪽으로는 스페인이, 동쪽으로는 포르투갈이 독점한다는 내용을 기본골자로 하는 '또르데실야스(Tordesillas) 조약 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아메리카 대륙은 스페인에 의해서 정복되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브라질은 1500년 4월 22일에 포르투갈인 뻬드로 알바레스 까브랄에 의해 발견되어 포르투갈의 차지가 되었다. 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세계 양분협약에 따라 대서양상의 까보 베르데 섬의 서쪽 370 레구아를 기점으로 할때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관할에 속하였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영유권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1519년 이미 마젤란과 세바스띠안 엘까노에 의하여 세계일주 항로가 개척되었으며, 1521년에는 이들에 의해 필리핀 남부의 몰루까섬이 발견되었다.

1525년 세바아인 조프레 데 로아이사가 이끄는 선단이 스페인을 떠나 '몰루까스'군도로 향해 갔지만 도달한 후 말리카 해협을 지나 몰루까 군도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스페인 함대와 마주치게 되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서쪽으로 계속 항진한 서반아인들은 동쪽으로 항해해 온 포르투갈인들과 마주치게 된 것이다.

아무튼 스페인은 포르투갈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멕시코를 거점으로 하여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하여 동양의 땅인 필리핀, 중국, 도착하여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한 선교활동을 벌였고 그후 1백년간 일본의 기독교화 작업이 시도되었다. 예수회 신부들은 일본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서구의 온갖 문명과 문화를 전파하였으며 1590년에는 인쇄기를 가져와 '이솝 우화' 등 문학 및 종교, 역사서등을 번역하여 출간함으로써 동서양의 문화교류는 매우 깊게 이루어져 갔다.

하비에르 신부는 1551년에 인도의 고아로 돌아간후 1552년 4월 중국 광동성 남쪽 상천도에서 중국 선교를 위해 입국을 기다리다가 병으로 죽고 말았다. 그후 서구인들의 중국 입성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체되었다. 그러나 1583년 예수회 신부 마테오 리치에 의해 결국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1601년에 이르러서야 리치 신부는 북경에 도착하여 북음전파와 함께 중국의 베일을 확실하게 벗길 수 있었다. 중국에 대한 최초의 책자는 1577년 베르나르디노 데 에스깔란테에 의해 만들어져 유럽에 소개된 바 있으나 그보다 앞서 포르투갈인인 에르난 멘데서 멘토가 쓴 여행기가 1555년에 출간된 바 있다.

이처럼 16세기 중엽부터 서구의 동양에 대한 관심은 커져만 갔지만 정작 조선의 존재는 베일에 싸인채 알려지지 않았다. 1592년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으로 인하여 조선은 처음으로 서구에 글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이때 전쟁의 상황이 상세히 기술되어서 거북선과 의병의 활약상도 상세히 적고있다. 1593년 12월 일본에서 활동중이던 스페인 신부 세스페데스가 전해부근의 웅천땅에 도착함으로써 한국땅을 밟은 최초의 서구인이 되었으며, 4월의 편지도 남겼다. 그는 조선을 문화 민족으로 기술하였는데, 이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사료가 될 것이다. 그의 방한이 비록 전란의 와중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이 전쟁과 세스페데스의 방한은 신비의 나라 조선이 그 정체를 서구인들에게 알리게 되는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작년 11월9일에 스페인 정부는 세스페데스의 방한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고향인 빌야누에바 데 알바르데데에 '세스페데스 문화관'을 건립하였다.

콜럼버스의 신대륙발견은 진출이 아닌 침략이라는 규탄시위가 남미 곳곳에서 일었다.

한국을 최초로 방문한 사람이, 그리고 최초로 조선에 대한 기록을 남긴 사람이 스페인 사람이라는 것은 한국과 스페인 양국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서반아어권 세계와 동양과의 첫 만남은 앞서 언급한 필리핀, 일본, 중국, 한국등의 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졌으며 그 만남속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5백주기를 맞아 두세계의 만남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다시 내리는 것도 큰 의의를 가질수 있을 것이다.

사람산책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원의 민주화를 꾀한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지난 11월 초에 전국적으로 발표된 1만여 교사들의 교사선언문 중 일부가 아닐까하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정확히 지금부터 32년전인 1960년에 우리 역사상 최초이자 전국 최초로 결성된 '경북지구 교원노동조합연합회'의 결성대회에서 채택된 5대강령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경북지구교사 8천여명의 대표로 선출된 분이 바로 김문심씨이다.

김문심씨는 60 · 70년대를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시대의 지식인이자, 동시에 교사로서의 소명을 사회민주화와 교육민주화운동에 다바친 한 시대의 교사이기도 하다.

일제하인 1910년대 초에 태어나 자란 그는 일본 와세다대학 유학시절에 처음으로 사회주의를 접하고, 비로소 민족과 민중에 대하여, 그리고 지식인의 소명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다.

교원노조의 씨를 뿌리다

김 문 심

6 · 25를 지나며 남쪽에 자리를 잡은 김문심씨는 대구고(현 경북고), 대구상고, 대구농고 등에서 평범한 교사로의 직분에 충실한 생활을 보냈다. 그러나 해방이후 사회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친일인사들의 잔존속에 교육계 역시 일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오히려 이승만 자유당 정권기를 통해 미군정에 의한 민족적 불평등과 사회의 모순은 깊어만 갔고, 그가 몸담았던 교육계도 '바른교육'이란 통하지 않는 참담한 왜곡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4 · 19와 함께 넓어진 사회공간에서 김문심씨는 그해 5월 7일 대구지구 교원노조를 만들고, 이어 5월 29일 앞서 말한 최초의 도단위 교원노조연합회를 경북지구에서 결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처음으로 '지주적 교육, 권력으 부터 독립된 교육, 교원의 신분보장'등이 제창됨으로서 실상 오늘날까지도 요구되고 있는 교육의 지주화 · 민주화를 통한 사회대개혁의 시원을 연 것이다.

이후 같은 해 7월 17일 전국적인 교원조직인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가 만들어지고, 타 업종 노조와 연대활동까지 벌이게 되었다.

그뒤 이 조직은 마치 지난 89년이후 전교조 투쟁을 보는 것 처럼, 정권의 강경한 탄압과 갖가지 와해공작을 겪어야만 했다. 교조간부 소속 교사의 지방벽지발령, 부당인사, 그리고 이에 맞선 교사들의 연일 계속된 시위, 타 업종노조와의 공동투쟁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활동에 교사로서, 양심을 지닌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변혁을 앞당기는 운동가로서 김문심씨는 더더욱 변해갔고, 앞장서게 되었다. 이듬해 5 · 16쿠데타와 함께 군부의 부자비한 탄압속에 김문심씨는 '반공임시 특별법' '데모규제법' 등 2대 악법반대투쟁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아야만 했다. 그후 10년만인 1970년에 감형처분으로 출소하긴 했으나, 번역학에 조금 몰두했을 뿐, 끝내 긴 투병을 거쳐 87년 2월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가 떠난뒤 불과 2년 후 우리의 교사들은 또다시 스스로 지랑스럽게 노동자가 되길 지저하며 전교조를 결성하였고, 전교조는 김문심씨가 겪은 고초에 못지않게 해직등 각종 탄압이 되풀이되는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수천의 교사가 해직자가 되어 교문밖으로 내몰려도 오히려 또다시 수만의 교사들이 선언문에 그 지랑스런 이름을 빼빼이 주어넣고 있음은, 김문심씨가 한명의 지식인으로서가 아닌 이땅에 뿌려진 거대한 양심의 씨앗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부>

고엽제

소금상자

고엽제란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사용한 화학무기 중 하나이다. 미국은 무기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글 초토화로 게릴라전을 방지하고 식량을 말려 군량공급을 막기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국제연합은 제네바의정서에서 금지한 화학무기류로 간주하고 베트남전 이후 사용을 금지했다. 10만여 톤의 고엽제 투하는 정글 초토화에 그치지 않고 많은 참전군인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유전적 장애가 일어나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다.

최근 국가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병원에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강제퇴원시키는 등 3백 30여명에 이르는 환자들에게 전후 배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햇 글

정치는 파벌을 낳고 파벌은 정치를 배반한다

(박중성)

"형편없이 구겨지고 얼룩진 오늘의 모습을 '문제'라고만 인식하고 분노할 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체 몇 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선거때 투표하면서 한숨을 내모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책은 한국 정치는 정치과잉이 결정한다는 전제하에 과거의 파벌행태를 역사적으로 재추적하고 오늘을 장식하는 파벌을 재인식함으로써 다가오는 내일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해 쓰여졌다.

전문적 논술을 탐피해 알고 있으나 확실히 정리되지 않는 과거 파벌의 행각, 기억할 수 있으나 어디로 떠나갔는지 헤아릴 수 없는 정치 무리들의 표류 역사에 대해 쉽게 쓰여진 책이다.

<한울 . 5천 원>

여성 이야기 주머니

(위기철외 28인 지음)

여성 문제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개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 지립과 정치적 세력화를 허용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여성을 상품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재미있는 꽁뜨로 쓴책이다.

<녹두. 4천 원>

앎 터

백제 한자문화에 대한 초청 강연회

삼국시대 일본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백제 문화 중에서 한자의 교류를 중심으로 초청 강연회가 열린다.

강사 이종철(한림대 교수)
일시 11월 20일(금) 오후7시~8시
주최 본교 교육대학원 일본어교육 과

형법에 관한 강연 및 학술 발표회

'신뢰의 기초'라는 본심적 정의로 규정하기에는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내용
강연회
직집행위지의 객체에 대한 착오시 배후자의 형사 책임
(이정원 박사, 중앙대 강사)
학술발표
· 경찰 조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유계상, 중대 법학과 4)
· 사형제도의 합헌성에 대해 (최두흔, 중대 법과대학 석사과정)
일시 11월 17일(화) 오후2시
장소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강의실(6101)
주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형사법학회

공 고

제 목 : '92학년도 전기 졸업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92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중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다 음-

1. 일 시 : 1992. 11.12(목) -11.20(금)
2. 장 소 : 서울캠퍼스-사범대학 교학과
   용인캠퍼스-용인캠퍼스 교무과
3. 제출서류 : 가) 무시험검정원서 1부(소정양식)
   나) 전학년 성적증명교부원 1부(소정양식)
   다) 주민등록등본 1부
4. 유의사항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의 교원자격증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교직과정 이수자 중 교직과정의 소정학점을 이수한 자라 하더라도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미제출자, 성적미달자(전공. 부전공 각각 3.0)의 교원자격증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자는 졸업식후 교원자격증을 사범대 교학과에서 배부할 예정이며, 불합격자는 본인에게 사전 통보함.

199. 11. 5.

사 범 대 학 장

공 고

제목 : '93학년도 제1학기 모현학사(기숙사)생 모집 안내

본 용인 캠퍼스 모현학사는 '93학년도 제1학기 남, 여 학사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코져 하니 희망 학생은 신청하기 바람.

- 다 음 -

1.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 각 건물 안내실
   2) 접수기간 : 1992. 11.10(화) ~11.30(월) 까지
   3) 원서 접수처 : 모현학사 운영과(기숙사내)
2. 제출서류
   1) 입사 원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성적 증명서 1부
   4) 증명사진 3매
3. 선발기준 : 학업성적 및 통학거리 고려
4. 입사확정 : 서류심사후 입사 확정자에 한하여 입사기간 및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93년 2월초 우편으로 개별 통보할 것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과로 문의 바람

모현학사 운영과 : (0335)33-1692, 30-4102, 4103

1992. 10. 30

모 현 학 사 장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계기로 본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

돈주고 눈치보는 한미행정협정

국내 시설등 무상사용, 기지 설치지역 민중들 생계대책 없어

행정협정 체결 이후 정부가 재판권행사한 경우 0.7%에 불과

미군 범죄자들의 별천지인 한국

최근 윤금이씨 살해사건 뿐만 아니라 이방에 미군이 주둔한 지 50여년 동안 미군은 수많은 범죄를 지질러 왔다.

외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67년부터 87년까지 주한미군 범죄는 모두 3만9천4백52건으로 범죄에 가담한 미군은 4만5천1백38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해마다 평균 2천2백백명, 하루평균 8건의 범죄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이렇듯 미군범죄가 극성을 부리며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중요 요인은 한미행협(SOFA)의 불평등성과 한국정부의 대미굴욕적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겠다.

종전 직후인 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한미행협을 체결한 것을 규정한지 14년만인 1966년 체결된 한미행협은 많은 독소조항을 지니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행협체결 자체를 환영하는 분위기여서 이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었다. 행협은 미국의 고자세와 한국정부의 비자주성으로 인해 미군이 주둔한지 겨우 16년만에 체결된 것이며, 그 내용도 매우 불평등한 형태로 체결된 것이다.

한미행협의 불평등조항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형사재판권에 관한문제'이다. 이 조항에는 한국정부가 사건 발생 15일 이내에 재판권 행사를 서면요청하지 않으면 재판권이 저절로 미국측에 넘어가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미행협 체결 이후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0.7%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미국측에 이양하였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우 52%, 일본의 32%, 필리핀의 21%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낮은 비율이며, 그나마 불기소처분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재판권이 넘어온 미군범죄자에 대해 미국측은 지금까지 경동이나 본국송환 등의 미미한 제재를 가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미군 범죄자들에 한국은 미군의 부법(無法)이 통하는 별천지로 인식되왔으며, 이런 상황에서 범죄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불평등한 한미행정에 대한 개정요구는 필연적인 것이며, 결국 24년 만인 지난해 1월 이 협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개정 결과 한국정부는 미군의 모든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범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다도 재판권을 행사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과연 확고한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정부는 시종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따름이다.

사건 직후 경찰은 마클 이병을 붙잡았으나 미군측의 신병인도 요청에 따라 곧바로 미군측에 넘겨주었다. 현행 한미주둔 국지위협정(한미행협 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피의자를 체포하면 한국 경찰이 먼저 피의자신문조서작성 등 기초조사를 한 뒤 신병을 미군측에 넘겨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도 않은 것이다.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

한미행협은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미군기지와 시설사용 문제'

미군은 행협 제5조 2항("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시설과 구역 사용을 공여받는다")에 의해 한국내의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면서 한국민중은 심각한 재판권 피해 및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된다. 미군기지의 이전지역이나 새로 기지가 설치되는 지역의 민중들은 근본적인 생계보장 없이 내몰리게 되며 이 때문에 삶의 터전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항에는 그 부지가 사유재산일 경우 한국정부가 보상을 하도록 못박고 있다.

한편 행협 제4조 1항에는 '미합중국 정부는 시설과 구역을 반환한 때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어 미군이 주둔하면서 입어나는 모든 사고, 손상, 지연파기 등에 대한 보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된다.

둘째, '한국인 노무지의 노동3권 문제'

행협 제17조 2항에는 "고용주(미군당국)는 그들의 인원을 모집하고 고용하며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필요한 경우 미군이 한국인 노무자를 자의로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실제로 부당해고당한 노무자는 연간 4백여명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 쟁의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노동부에 회부하고 여기서 해결이 안되면 다시 합동위원회에 회부하며 이때 합동위의 결정은 그대로 구속력을 가진다. 합동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고용원은 해고 할 수 있다. 합동위에 안건이 회부된 후 적어도 70일의 기간은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70일간은 긴 기간이며 고용주는 갖가지 분열공작과 파괴공작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파업은 성사될 수 없다.

셋째, '통관과 관세 문제'

미군은 행협에 따라 한국에서 세금면제와 출입국 자유라는 과적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행협 제14조 1항에는 '미합중국 군대는 그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가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최대한의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다량의 물자가 무관세로 들어와 국내시장에 방출되는 폐단이 생긴다. PX물품의 암거래 등으로 혜택을 받는 예수가 87년 한해만 해도 7천2백80만불 정도로 추산되는 것은 이 조약의 불평등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한미행협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은 한미관계의 예속을 타파하는 민족자주화의 실현뿐이다.

이렇듯 한미행협은 한미간의 예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불평등조약 그 자체이다. 어느 특정조항에 대한 수정에 의해 행협의 문제점이 극복되기에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호혜평등에 입각한 협정으로 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법관계의 불평등성이 법관계 그 자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간의 전면적인 불평등성의 해소 없이 불가능할 또한 지평하다. 따라서 한미행협의 불평등성을 완전히 해소하는 길은 한미관계의 예속성을 타파하고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총체적인 부문에 있어서의 민족자주화를 실현하는 것뿐이다.

오 경 훈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3당의 대선공약 분석

반민주, 반민중적인 민자당의 정책

민자당의 정책이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임은 현재의 통치체제, 통치기구, 반민주적 악법들에 대해 그 어떠한 정책들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확인된다. 이것은 현재의 통치체제, 통치기구, 반민주적 악법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자당 정책에는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집시법, 보안관찰법 등 반민주악법에 대해 형식적 차원의 언급도 없다. 민자당은 정권안보의 도구로 변화한 경찰과 검찰, 사법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이 '엄정한 법집행으로 민생치안에 주력하는 강력한 정부 실현(3항)'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6공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과 같이 억압적 정치구조를 재현시키겠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에서도 민자당은 현재와 같은 대외의존적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정경유착을 계속 유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8항)' '중권시장의 단계적 대외개방(9항)' '철도의 특성에 맞는 대량, 고속수송체계 구축, 공항시설 확충(13항)'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사전 보완조치 완벽하게 강구, 금융실명제 조기실시(21항)'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대외개방이 어쩔 수 없으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방을 해나가자는 것이며, 마지막 보루인 중권시장도 어차피 개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부고속전철, 영종도신공항 건설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규제 완화, 제품가격에 대한 규제 철폐는 투기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독과점가격을 형성시켜 물가상승을 선도하는 재벌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사전보완조치를 완벽하게 강구한 이후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민자당은 기층민중들에 대한 억압과 수탈정책을 계속하려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주적 발전을 위해 시급한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개정, ILO 기본조약 비준, 정부간섭 배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나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사관계 안정기조 정착(57항)'이라는 주장에서 지금까지의 노동현장에 대한 억압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있음을 확인한다.

민자당은 쌀수입반대를 주장하면서 '그밖의 품목 최소시장접근 및 국내생산통제를 전제 수입제한, 양질의 국내농산물을 최대한 생산하여 수입수요 억제(31항)'라고 하여 농산물수입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농지거래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26항)'를 주장하여 농촌의 해체, 투기 강화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해직교사 및 전교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오히려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55)'을 제시하여 교사들을 경권의 꼭두각시로 만들려 하고 있다.

상당 부분 민주적이면서도 타협적이고 동요하는 민주당의 정책

민주당의 정책은 상당부분 민주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선거연령 18세로 인하(6항), 특별검사제 도입(8항), 경찰중립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확립(17항), 1993년까지 금융실명제 완전 실시(24항), 한국은행 독립(26항), 쌀, 쇠고기 등 기간작목의 수입개방 절대불허(45항), 농어가부채 대폭감면(48항), 수세 및 농지세 폐지(72항), 노조설립의 자유보장 등 노동관계법을 ILO수준으로 개정(75항), 생활급을 보장하는 임금제를 확립하고 정부에 의해 강요된 총액임금제 즉각 폐지(77항),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78항), 여성할당제 도입(81항), 남북한의서 국회동의, 흡수통합 반대, 평화협정 체결(이상 5백대 공약에 포함) 등이 현 시기에서는 민주적 개혁정책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모든 정파, 계층을 포함하는 범국민적 내각을 구성(2항)'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정파는 민자당과 국민당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현 경제문제의 주범인 재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책을 내지 못한 채 '재벌의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을 억제하여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겠다(30항)'라는 극히 미온적인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동3권에 있어서도 '군인, 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78항)' 한다고 노동2권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적정수준의 자주국방력 육성(97항)', '북한과 평화공존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계속주둔 지지(98항)', '군축분위기가 조성되면 군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99항)'한다는 등 평화군축, 자주성 확보에 우선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한다기 보다 외세와 군부, 보수화된 정세에 지나치게 타협하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허구에 가득찬 재벌위주 정책으로 일관한 국민당 정책

국민당의 정책은 국민들에게 사탕발림을 하기 위한 허구적인 공항이 너무 농후하다. '1년내 3% 물가, 3년내 3백억달러 무역흑자, 5년내 2만달러 국민소득 달성(1항)' '향후 5년간 1만여 업체의 세계 일류 기술 보유 중소기업 육성(11항)' '아파트를 수도권은 반값, 지상도시는 3분의 2가격으로 공급(20항)'등이 그것이다.

국민당은 위와 같은 정책이 어떻게 해서 현실화될 것인지 납득할만한 방안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민간주도 경제(1항)' '금융자율화(3항)' '금리인하, 통화량의 신축적 공급(4항)' '부가가치세 인하(7항)' '중소기업 중심으로 신업정책운용(9항)' '부동산투기 근절(22항)' '작은 정부(25항)' 정도라고 보인다. 그러나 민간주도 경제란 현재 재벌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경제에서 필연적으로 재벌위주의 경제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통화량의 신축적 운용도 상황을 봐서 통화팽창을 하자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인하는 되겠지만 물가는 올라갈 것이다.

국민당이 재벌일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통일문제에서 극단적으로 부각된다. 국민당은 '경제인의 자유왕래를 통한 경제교류의 활성화로 2년내에 국민의 통일 이룩(34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통일국가 건설(35항)' '전환기의 안보태세 강화(36항)'등으로 민자당도 명시적으로는 주장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정체적 지배, 흡수통합, 군사체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당은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개정을 추상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집시법, 검찰과 경찰 및 군대의 중립화, 양심수 석방, 평화군축, 국방비, 주한미군, 노동악법개정, 해직교사 및 전교조, 농산물 수입개방, 농산물가격보장 및 수매제도 등에 대해서는 50대 정책에 아예 일언반구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당의 정책이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박 충 렬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정책부장>

3당은 대선공약에 공통적으로 경제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근본적인 개혁방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민자당은 지속적인 수입개방정책의 추진 및 국보법등 제반 악법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반민중적 공약으로 비난받고 있다.

민자 노동법 개정등 민생문제언급없이 대외 수입개방 확대 내세워

민주 정치·민중생존권등은 민주개혁표방, 경제·군사는 여전히 대외의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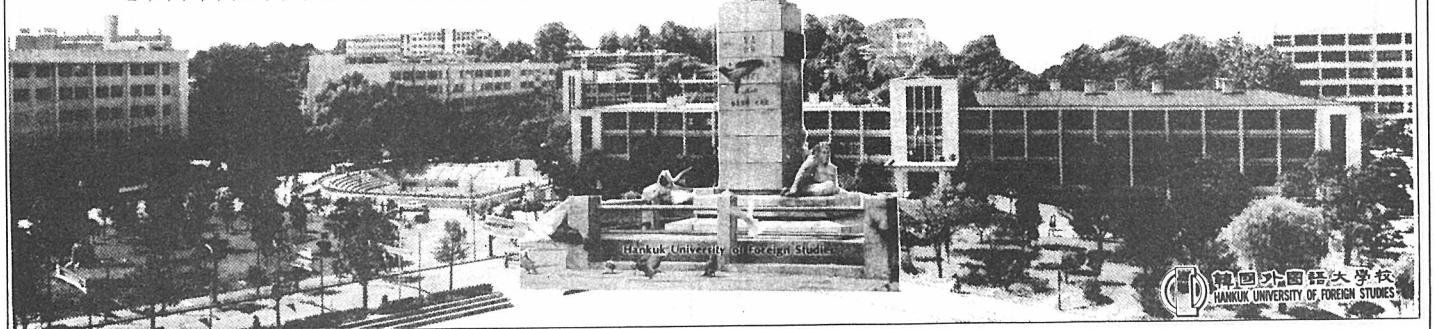
국민 현실가능성 없는 경제공약·시장경제 우위 내세운 흡수통일 주장

진리 · 평화 · 창조

예나 지금이나 외대인의 캠퍼스는 지구촌

전 세계24개 언어가 함께 생활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우리 외대는 외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폭넓은 학문을 탐구하는 개성있는 종합대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954년 국내 처음으로 외국어 전문 교육 대학으로 태어나
38년이 지난 오늘 온 세계 구석구석에서 힘차게
오늘을 만들어가는 외대인의 모습을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를 호흡하는 젊음,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젊음이 만들어 갈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캠퍼스는 바로 지구촌 전체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밝음의 배움터 서양어계열
동양권에 한국을 심는 주역을 양성하는 동양어계열
21세기 신개척자의 꿈과 이상이 숨쉬는 동구어계열
실력있는 엘리트를 양성하는 법정계열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들의 터 상경계열
외국어 교육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사범계열
더 나은 인간 삶의 창출 인문계열
자연과의 대화, 이론과 실천을 겸한 자연계열



□임수경 통일문학상 평가 및 전망

통일염원 담고 성장한 전민족적 문학상

89년 여름 한반도 북녘 평양하늘에 울려 퍼진 남녘의 한 여대생의 외침은 분단 반세기를 끝내고, 통일의 새시대를 선언하는 남과 북, 해외 칠천만 민중의 하나된 함성이었다. 임수경 대표의 방북은 암울한 식민지 독재시대를 청산하고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에 새로운 깊을 개척한 커다란 성과였다. 당시까지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통일운동에 지주교류라는 새로운 방식의 투쟁은 통일운동의 영역을 남과 북, 해외동포가 참여하는 데까지 확대시켰다.

'임수경통일문학상'은 남한 민족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조국통일운동의 역사적 전환점을 이룬 임수경 대표의 방북성과를 계승하고, 문학을 힘으로 하는 조국통일운동의 실현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89년 당시에는 임수경 대표의 방북이 가지는 의의를 사천만 민중과 함께 공유하고 이를 성과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로 제기되었다.

운동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올해 제4회 임수경통일문학상에는 시·소설·생활글 등 많은 수의 해외동포 작품들이 응모되었다. 일제 식민지시대에 이주한 러시아 동포들과 이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포들의 작품들을 통해 남과 북의 영토적 통일만이 아닌 진정한 조국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 임수경통일문학상을 통해 실현된 것이다. 지난 해와 올해를 지나면서 임수경통일문학상은 문학작품의 교류를 통한 민족대단결의식의 고취라는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작품의 내용면에 있어서 북녘사회를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한 내용의 글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남녘 동포들의 응모작품과 같이 노동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생거나온 북녘동포들의 글이 다수 응모된다면 이 문제는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작품의 응모뿐만 아니라 남북공

문학작품 교류 통해 민족대단결 고취

자주교류 실현 위한 투쟁과 병행돼야

이를 문학이라는 그릇에 담아 실현하려는 노력이 임수경통일문학상인 것이다. 어린아이에서 칠순 노인에 이르기까지 임대표에 대한 사랑과 통일에 대한 작은 소망을 글에 담는 일은 통일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넓히고 통일운동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어졌다.

간혹 임수경통일문학상에 응모하는 작품은 주제가 '통일'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시대의 문학이란 우리 사회의 삶의 모습과 사상의 표현이기에 이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야 한다. 임수경통일문학상 역시 이러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식민지 예속의 역사 속에서 억압의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해서 투쟁하는 노동자·농민·청년학생의 글들은 민중해방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투쟁의 동력이 되었다.

제1, 2회 임수경통일문학상은 남한사회 내에서 이러한 역할을 전행하면서 남한 민중의 삶과 투쟁을 함께하는 문학상으로 성장했다. 91년 제3회때는 북녘과 해외동포의 참여를 실현하면서 전민족적인 문학상으로 전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또한 지배정권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된 북녘사회의 모습을 그 사회를 살아가는 민중들의 진솔한 표현을 통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훌륭한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해방 이후 최초의 전민족적 문학상'이라는 영광을 누리면서 제3회 임수경통일문학상은 임대표의 방북성과에 버금가는 통일

통심사와 출판사업 등이 진행된다면, 전민족적인 문학상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임수경통일문학상이 지주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북녘 동포들의 작품이 응모되지 못한 것은 정권의 탄압속에서 지주교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부재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매회 시상식에 기해지는 탄압이나, 북녘과 해외동포들의 작품응모 경로의 차단 등을 조직적인 대응으로 분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4회 임수경통일문학상은 심사발표와 시상식만을 남겨두고 있다. 임수경통일문학상은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진 몇몇 사람들과 작품에 의해 빛을 내는 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관심과 참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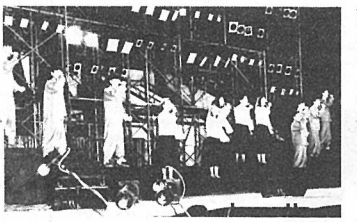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힘찬 진군의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학생들이 더 높은 관심과 노력으로 임수경통일문학상을 지켜나갈 때, 제5회 임수경통일문학상은 남과 북의 문학교류를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통일조국건설의 굳건한 토대로 지리하게 될 것이다.

서 명 아

<서학·노어4, 임수경통일문학상 준비위원장>

□'공정선거와 민주사회실현을 위한 4천만의 대합창' 서울공연을 보고

미리보는 살맛나는 세상



유난히 서늘한 거울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15일(일), 많은 이들의 발걸음은 한양대 체육관으로 분주히 향하고 있었다. 국민회의에서 마련한 전국순회공연 '공정선거와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4천만의 대합창' 그 시작인 서울공연을 보러온 인파들이었다.

'아름다운 나라, 살맛나는 세상'이라는 공연부제에서 알수 있듯이 전반적인 매용은 한달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승리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예정된 시간보다 20분정도 늦게 시작하였으나 관객들은 민주정부수립에 대한 열망때문인지 지루한 표정없이 다함께 노래를 부르며 행사를 기다렸다.

본격적인 순서에 앞서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노래패의 '애국의 맹세'를 시작으로 '여는 마당'이 열려 행사의 막을 올렸다. 제1부 '아름다운 나라'에서는 우리가 가야할 나라의 상과 지금의 현실을 대비시켜 김원중씨, 김영남씨등의 노래로 표현하였다. 제2부 '역사의 함성'은 끊임없이 탄압을 딛고 일어서는 민중의 모습을 서충원 노래패, 안치환씨등의 노래와 서울지역탈패협의회의 춤등으로 보여줘 분위기는 절정에 올랐다. 이어 제3부 '살맛나는 세상'에서는 노래, 연극, 영상등이 다양하고 신선하게 제시되어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연극 '현대판 한석봉', 커다란 액정화면을 통해 민자당원교육용필름을 보여준 'NG', 그리고 공정선거,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CF모음'등은 재치와 민주정부수립이라는 목적이 잘 조화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마지막 제4부 '평화의 아침을 열자'는 국민회의 집행위원장 김근태씨의 이야기와 관객들이 다함께 '함께 가자 우리 이길을'을 부르며 공정선거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공연중에 관객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자신이 원하는 민주대개혁안을 적은후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순서는 의미깊었으며 관객들의 참여가 높았다.

순서와 순서사이가 다소 엉성하게 이어졌으나 행사 하나하나가 앞차 관객들이 끝까지 무대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러나 공연이 애당초 시민과 학생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만여 관객의 대부분이 학생이고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 공연에 앞서 체육관앞에서는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한 '청년한마당'이 2시부터 열렸는데,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감정을 타파하는 것을 의미하는 '영남이와 호순이의 해방혼례식'과, 공정선거 감시단 발족식이 진행되었다. 또 체육관 내부에서는 '4천만의 대합창' 부문행사로 '전국청년학생미술대전'이 열렸고, 유화, 판화, 목탄화등 훌륭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눈길을 모았다. 준비주체들의 한달여에 걸친 행사준비와 관객들의 들뜬 분위기, 출연자들의 신명나는 공연이 한데 어우러져 '4천만의 대합창'그 서곡인 서울공연은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남은 것은 좀더 다양한 관객층의 확보와 더욱 다양한 행사의 준비일 것이다. 아울러 민주정부수립의 열기를 진정 아름다운 나라 살기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초석이 되는 공정선거로 이끌어 나가는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진열기자>

문화 응답샘

올가미(상·하)

—박치대 지음

89년 이래 계속적으로 탄압받아오고 있는 '전교조 운동'을 일선 교사로 재직중인 작가의 날카롭고 개성있는 문체를 통해 재조명하는 소설이다.

대선을 앞두고 전교조합법화 쟁취투쟁의 열기가 고조된 때에 소설을 통한 참교육의 의미를 살펴본다. (대림기획, 각권 4천3백원)

정책토론회—6공화국 문화정책의 허실과 문화개혁의 방향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시기에 즈음하여 문화대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8일(수) 부터 20일(금) 까지 오후 2시에서 6시에 걸쳐 민예총강당에서 가질 예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이 참가하여 문예분야, 교육분야, 언론·방송분야 등 문화관련 제분야의 민주적 개혁과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장을 마련한다. (문의처 : 민예총 743—5872)

종로 고양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후원

문예진흥원 공연예술 아카데미 제4기생들이 오는 20일(토)부터 25일(수) 까지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수료 발표 공연을 갖는다.

젊은 신예작가 조광화(37)의 창작품으로 옛날 화려했던 종로가 퇴락하여 가는 것을 안타까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공연은 공연예술 아카데미 4기생들이 1년동안 갈고 닦은 이론과 실기를 평가하는 기회가 된다. (문의처 : 문예진흥원 755—8064)

우리말의 쓰임새 (228)—하(下)에서

· 그런 상황하에서였다면 너라도 별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은 알게 모르게 우리 입에 지주 오르내린다. 다시 생각해 봐도 '상황에서'이지 '상황하에서'는 문맥적으로 맞이 안된다. 이주 많을 경우 아무 필요없는 '—하(下)와 '—아래'가 덧붙여 쓰인다. '—주제하에' '—상황하에서'등이 그러한 예인데 이런 경우에는 '—주제로' '—상황에서'라고 하는 것이 옳다.

용인캠퍼스동아리<우리말 가꿈터>

□공연이야기

서울, 외대연극회 정기공연 '칠산리' 막을려

지난 11일(수) 부터 14일(토) 까지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는 외대연극회(이하 외연)제47회 정기공연 '칠산리'의 막을 올렸다.

'칠산리'는 그간 외연의 워크샵공연 및 정기공연에서 여러차례 선보인 이강백씨 작품의 하나로, 특별히 작품의 선정에 있어서는 연출자와 배우들간의 작품토론회를 가져서 배우들이 작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이 다소 극복되었다는 데 우선 큰 의의가 있다.

외연의 여러차례 공연에서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던 무대장치를 보완하고 무대음악도 본교 동아리인들의 도움을 받아 전문성을 띠어 작품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다.

'칠산리'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공연은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잦은 암전으로 다소 산만한 듯 했지만 관객들 모두는 시종일관 진지하게 관람을 했다. 이념을 넘어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그간 역사의 오점으로 자리잡고 있던 남북 대립의 고통과, 이념의 차이로 인해 소외받고 낙오되는 인간들의 아픔을 공연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공연도중에 펼쳐지는 폭소와 눈물을 자아내는 슬픔은 작품이 주는 감명에서 기인한것도 있겠지만, 배우들의 대다수를 차지한 1, 2학년 학생들의 진지하고 열성적인 연기력이 돋보이는 공연이었다.

이번 공연의 연출을 맡은 김필곤(동양·아람이4)군의 "요즈음 펼쳐지는 여러 연극들이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배우들의 발성, 동작등 서양짓을 그대로 모방하고 답습하는 경향이 짙어간다"는 이러움이 작품 '칠산리'에서 처럼 우리의 정서로 우러나온 작품을 형상화 하는 작은 노력에서 극복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서울, 노래패 새물결 제17회 정기공연 '선언 / '92민중의 나라로' 개최

보수정치꾼들의 행각이 늘아 나고 있는 으스스한 정치판에 민중의 날카로운 화살을 쏘아 부칠 수 있는 노래공연이 지난 10일(화) 오후 6시에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서울캠퍼스 노래패 '새물결'의 17번째 정기공연으로 올 대선을 바라보고 준비됐다는 데 의의성을 갖는다. 한 거울 남씨를 방불케 할 정도로 감작스런 추위 탓인지, 모닥불을 피웠음에도 노천주위에는 몇명되지 않는 학생들만이 공연을 관람했다.

노래 '선언2'로 시작된 '선언 / '92민중의 나라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래는 플폰이고 정치적 비판과 허구를 선전하는 상황극을 통해 대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학생들에게 심어 주기 위해 기획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새물결의 정기공연은 그 속에 적지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특정 야당의 후보만을 거냥하여 선전한 상황극이 공연의 순수성을 흐리지 않았는가라는 점이고, 노래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없어 모두 함께 하는 자리가 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공연이었다.

'노동자 대통령', '민중권력 쟁취가', '민중의 노래' 등을 불러 적은 인원이지만 노래로써 대선에 대한 의식을 함께 하는 공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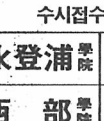
용인, 손말사랑회 제4회 수화발표전 열어

차가운 바람이 겨울을 재촉하는 용인캠퍼스에서 따뜻한 감동을 주는 행사가 있었다. 11월 11일(수), 12일(목) 양일간 손말사랑회에서 마련한 '제4회 수화발표전'이 그것이다.

총3부로 구성된 이 공연은 김민종의 '또다른 만남을 위해' 공일오비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등 최신가요와 '가야하네' '아 / 민주정부'등 민중가요를 수화와 율동으로 표현해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또 '다김이 수화를'이라는 순서에서는 과객들과 함께 수화를 배우기도 했으며 행사중간에 손말사랑회 회장은 "장애인보다 장애우(友)라는 말을 쓰자"고 제안을 하였다.

관심을 가지지 않고는 낯설수 밖에 없는 수화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이 행사는 음악과 함께 어우러진 수화를 통해 관객들이 장애인의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지리였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화발표와 기타 행사마련으로 장애인도 환하게 웃으며 살수 있는 사회를 앞당겨야 하겠다.



운전을 배웁시다

24년 전통·성실한 교육

특전
(1) 드라이빙 마스터에 의한 시청각 교육
(2) 탁아소 무료 운영
(3) 대학생, 직장인단체 특별우대
(4) 외국(이민)출국자 특별환영
(5) 실습시간 자유선택
(6) 통학버스 무료 운행
※ 면허소지자 시내운전연수

★★★컴퓨터 교육시설 완비★★★

學校法人 新進學園
新進자동차학원

개 강 : 매주 月요일
수시접수 (야간·휴일도 접수함)

永登浦學院	영등포 양평동 경인고속도로입구	0036~7 (633) 3962 3963
西 部學院	은평구응암동 신진공고 앞	(356) 2341~3
北 部學院	도봉구 번동 북부경찰서 뒤	(994) 2861~3

중국 연변대학 출판사에서 출판한
新華字典
(中韓辭典)

〈사전의 특징〉
1 중국 상무인서관('70년 수정출판)의 신화자전과 현대한어사전('87년 출판)에 기초하여 편찬하였습니다.
2 중국 현지 실제언어생활과 가장 가까운 중국어 학습이 가능합니다.
3 편집구성이 학습하기에 쉽게 편집되 있습니다.
예) 体(體) tǐ (체) ①몸·신체
(중국어) (발음기호) 음독(한글표기)
4 중국어 입문자, 중국어과 신입생, 기업체 실무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주문하시면 즉시 우송하여 드립니다〉

에스페로文庫
TEL.(02)752-2890/1 FAX.(02)752-2831

第8回 全國 大學生論文 懸賞公募

신한은행은 1982년 7월 7일 순수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일반시중은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은행으로서 젊은이의 꿈과 야망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금융시대의 경쟁력 우위 확보를 다짐하는 저희 신한은행이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 금년에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제8회 전국 대학생 논문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높은 학구열과 진리탐구의욕에 불타는 전국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신한은행 개요
● 설 립 일 : 1982. 7. 7.
● 은 행 장 : 라 응 찬
● 자 본 금 : 5,160억원
● 총 수 신 : 6조 4천억원(1992. 10월말 현재)
● 영업점망 : 국내 123개소
해외 7개소(1992. 10월말 현재)

응모요강
1. 자 격
● 응모마감일(1993. 5. 31) 현재 전국의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2. 응모논제 (아래 논제중 택일)
1) 家計貯蓄의 增大方案
2) 福祉社會建設을 위한 稅制改革方向
3) 世界經濟秩序 變化와 韓國의 選擇
4) 勞使協議會制度의 改善方案
3. 응모마감일
● 1993. 5. 31(월)
(우송시 당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4. 당선작발표
● 1993. 6. 30(수)
● 당선자 개별통지와 한국경제 및 매일경제신문에 공고
5. 상 금
● 최우수작 : 1편이내 300만원
● 우 수 작 : 2편이내 각 150만원
● 가 작 : 3편이내 각 80만원
● 입 선 : 5편이내 각 40만원
6. 응모요령
● 논문매수 : 200자 원고지 70~80매 내외 (WORD PROCESSOR로 작성, 제출시 20~30매 내외)
7~8매 정도의 요약문 첨부요 (WORD PROCESSOR로 작성, 제출시 2~3매 내외)
● 제 출 처 : 당행 본점 종합기획부(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및 지방소재 점포
7. 특 전
● 최우수작 및 우수작 입상자는 당행 입행지원시 필기시험 면제 특전 부여. (단, 당행 제반 채용 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함)
8. 기 타
● 응모작 제출시 한문 성함 및 현만처를 명기하고 본인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할 것.
● 접수된 논문은 일체 반환치 않으며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행 소유임.
● 학교명이 인쇄된 원고지는 사용치 말것.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행 본점 종합기획부로 문의할 것. (전화번호 : 756-0505 교환 3040, 3041)

새싹의 꿈 키우는 보람
신한은행

기획 좌담

인식전환 토대위에 양캠 연대의 틀 마련해야

토론자 : 김명철(사회 · 무역4,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김재훈(사회 · 경영정보 2, 용인캠퍼스 학자추 사무국장)
박순표(서양 · 독어1,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정책국장)
원치승(정과 · 정외4,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장 소 : 외대학보사 조사자료실
일 시 : 11월 15일(일)

21일간 지속되어 오던 본교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지난 12일(목) 자곡동 그린벨트 해제 추진위원회 구성과 서울 · 용인 캠퍼스의 계열별 특화발전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외대발전을 위한 요구안 마련에서 서울 · 용인 양캠퍼스가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구도로 진행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간의 외대발전운동의 수위는 각캠퍼스가 현저한 차이를 보여왔다.

캠퍼스별로 고립되는 학원자주화 사업작풍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 · 용인캠퍼스 주체들이 함께 만나 이야기 나누었다.

치승 : 올해 상반기 학내에 부착된 외대를 사랑하는 학우일동 명의의 대자보로부터 불붙기 시작한 외대발전운동은 수년간 나후되어온 교육환경과 외대의 위상을 세우고자 일반학우 중심으로 거론되어 왔다. 이는 서울 · 용인캠퍼스 학생과 동문, 학부모, 교수의 열망을 포괄하는 범외대인적 시안임에도 2학기 사업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학생회 활동 경험이 없는 총학생회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내부정비 미완으로 서울캠퍼스내 공유지체에만 치중하여 용인캠퍼스와 공동 논의기 부족했다.

병철 : 서울캠퍼스에서 먼저 제기된 자곡동 이전안에 대해 용인에서는 재단비리 척결과 교육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같은 선상에서 투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업양식에서 다소 차이가 생기더라도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지난 방학중에는 학생회 상충간부 중심으로 학자교양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전안 실현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해명이 치밀하게 전달되지 않음으로해서 간부들도 자기 일로 인식하지 못했고,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사퇴라는 악재가 겹쳐 외대발전 공동투쟁의 내용을 내오지 못했다.

순표 : 부각되는 학자사업의 중심목표는 '외대인의 혼과 자존심의 부활'이다. 서울과 용인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이며 자곡동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외대발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자곡장 이전은 서울캠퍼스만의 장래가 아니다.

병철 : 외대의 질적저하와 제2캠퍼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며 캠퍼스통합 의견이 제출되고 있으나 용인캠퍼스의 학생들에게는 자곡동 이전안을 접하기에 다른 점들이 있었다. 기존의 왕산이전계획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치승 : 근원적 문제는 대학당국의 마스터플랜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발표된 계획은 장래에 언젠가 왕산으로 통합하겠다는 내용이지만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면 대학당국은 학교발전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나타난다.

재훈 : 재단과 대학당국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다. 지난 89년부터는 발전계획의 실천을 중지하고 3년간 제자리걸음을 한 현실은 같은 시기 학교발전계획에 착수한 타대학과의 비교에서 외대의 낙후를 가져왔다.

순표 : 80년대초 지방캠퍼스 다수가 설립되면서 사학재단이 중복부지의 부담을 려게 되었는데 이중 캠퍼스별 특화발전으로 일찌기 방향선회 한 것이 성대의 예이다. 또한

교수 · 학생 · 동문으로 구성된 성대발전위원회에서는 의대신설을 함의하고 매년 30~40명의 교수 충원을 하고 있다.

그에 비해 외대는 20여개의 중복과가 존재하며 교수는 벅찬 강의배당과 양캠퍼스 이중 강의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이공계열 중심의 산업구조가 예상되는 2천년대를 앞두고 아직까지 본교에 공대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재단의 효율적 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병철 : 자곡동 논의는 캠퍼스 이전에 제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외대발전의 큰 획을 이룰 것이다. 대안없이 진행되고 있는 재단투지에 대해서는 이공계열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대학당국의 의지와 각성을 촉구하는 표본이다.

92년엔 총체적으로 양캠퍼스의 힘을 모아내지 못했던 상황을 반성하며 공동 연대하여 대사학재단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재훈 : 학자의 연구조직에서부터 연대의 틀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논의된 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재단, 교육부, 대학당국이 권력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선전해내고 대학발전의 최고 결정권력을 범외대인 차원에 두도록 해야 한다.

병철 : 전국의 대학별로 대학발전 운영위원회가 건설되고 있는 이시기에 본교도 이문은 외대발전위원회 중심, 왕산은 왕산발전위원회 중심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인식과 역량의 부족으로 문제점이 많았다. 이후에는 양캠퍼스 주체가 함께 구성되는 대학발전위원회를 건설하여 대학운영의 최고권력기구화 해야 한다.

지난주 도출한 서울캠퍼스 합의사항은 내용이 아닌 형식적 진전이다. 보다 전문적인 논의틀을 보장받은 측면도 있겠지만 내용적 확보가 시급하다. 제2단계 발전안 수립의 골간을 마련하여 학생이 주체가 되는 외대 발전을 이뤄야 한다.

치승 : 합의서 개념은 학교측에 발전계획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내용을 보장하고 또다른 방안을 창출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과 전제하에서 힘을 가지고 다음대의 사업에도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재훈 : 올해의 학자사업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인식의 전환이다. 상충제안 하달식의 관성보다는 학생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 불가능이라는 체념의 태도에서 나서서 이뤄보자는 인식으로의 전환은 앞으로 지속될 학자사업 전반에 있어서도 기반이 되는 것이다.

순표 : 인식전환의 기반 위에 이제는 양캠퍼스의 뚜렷한 연대 경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문 외발추와 왕산 학자추의 분리적 가동속에서 공동 논의 자리를 마련하고 발전의 장애요인은 재단임을 명확히 해야겠다. 더이상 한 캠퍼스만의 외로운 독자적 싸움은 없어야 하며 내년에는 동무를 비롯하여 민주총장선출문제와 재단이사제편 등 양캠퍼스의 공통 본모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진행되니만큼 연대의 틀을 마련하여 준비해 나가야 한다.

병철 : 서울 · 용인 캠퍼스의 분열은 바로 재단이 노리는 것이다. 캠퍼스별 이견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식을 파악하여 지향점을 제시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세우고 양자의 입장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시 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또 용인캠퍼스 지체적으로 중장기발전위원회는 자료 조사와 기조를 잡아내고 이를 대학발전추진위원회 속에서 함께 논의한다.

총장선출폭을 넓혀 재단과 학교를 분리해내고 권한을 총장에게 이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단은 재원확보로 본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여 남한사회 전체에서 학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순표 : 양캠퍼스 공동연대의 실천적인 통로마련으로서 주체들의 정

기적 모임을 제안할 수 있고 대학발전위원회에 공동 구성되는 지향을 가진다.

또한 용인총학생회 주최로 서울캠퍼스의 외대사랑선봉대를 용인에 파견한다든가 27(금)~28(토) 일부터 진행되는 용인캠퍼스 학자학교에 설명자로 초빙하는 것도 좋은 안이다.

재훈 : 92년도 양캠의 학자를 평가할때 나서는 문제는 합의도출 이후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인해내는가이다. 학자에 대한 대대적인 관심과 인식전환이 진행중인 지금까지도 재단, 교수, 직원과의 관계에 풀지 못한 요소들이 산적해 있다. 학원 주체역량의 연대의 틀을 마련하자.

치승 : 외대발전은 어느 시기, 어느 수준에서 정리될 문제가 아니다. 끝까지 애정을 가지고 양캠퍼스 뿐 아니라 범외대인 차원에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정리 : 이충미 기자>

명수당 明水堂

시간의 경영학

사은회에서 졸업생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자원이다. 우리는 내일의 시간을 오늘 사용할 수 없고 어제의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 우리의 인생은 단지 오늘이라는 하루의 24시간을 얼마나 유효하게 사용하는 가에 달렸다"라고…

시간은 끊임없이 지나간다. 누구라도 시간을 큰 탱크에 쌓아둘 수는 없다. 그러나 시간을 계속 찾아내고, 긁어모으고, 흔들어라도 이 귀중한 24시간을 20시간밖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5시간이나 26시간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시간관리(time management)야 말로 성공을 향한 열쇠다. 레이건 행정부하에서 여성으로 교통부장관을 지낸 엘리자베스 돌(Dole)은 끊임없이 시간관리를 실천해 온 사람이다. 캔사스 주의 로버트 돌(Robert Dole) 상원의원이 남편으로서 관찰해보건대, 그녀가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알레스 매킨지의 명저 '시간의 쇄략(The Time Trap)'을 읽었다고 밝혔다.

1900년대 초의 과학적 관리시대에 테일러(F. W. Taylor)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은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녹초가 될 때까지 일하지 않아도, 일하는 방법에 따라서 능률을 3~4배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언뜻 보기에는 지못 최고의 능률을 올려 일을 진행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은 아직도 멀었고, 설령 조금씩이라도 개량의 여지가 있다"라고…

우리들이 현재하고 있는 일과 할 수있는 가능성 사이에는 언제나 상당한 간격이 있다. 이 간격을 가능한 줄이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서 개인적 생산성(Personal Productivity)의 개념을 도입 · 권장하고 싶다.

생산성의 일반적인 정의는 '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이다. 예를 들면, 투입된 단위회계기지(원) 당 생산된청장의 톤수라든가 또는 투입된 단위회계기지 당 생산된 쌀의 화폐가치이다. 이러한 측정방법들은 노동숙련도, 새로운 기술, 자본, 경영정책 등의 동시적인 변화를 반영한다. '개인적 생산성'에 대해 생각할 경우에는 연간 단위로 연속되는 일정 기간내에 추진한 모든 활동이 가져온 산출물(output)을 고려해야만 한다. 대학생의 경우 개인적 생산성은 '연속기간중의 투입된 노력으로 얻은 개인의 학업성취'으로 그 생산성을 평가하는 일은 아주 간단하다. 그렇다면 개인적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산적 잠재능력을 신장시키는 일이다. 이 잠재능력은 인적자본 · 물적자본을 선별 투자함으로써 증가된다. 두번째는, 지금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know now)를 살려 생산적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일이다.

외국에 "Don't work hard, but work smart"라는 격언이 있다. 즉, 부력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일하라는 뜻이다. 아마도 우리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시간의 관리학이 있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전날 밤, 내일 할 일을 계획한다. 아무튼 그날 계획된 일은 그날 끝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개인적 생산성이 향상된다.

끝으로 하루 24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평소보다 아침에 30분 먼저 기상하도록 하자. 그리고 30분 먼저 학교에 나오도록 하자."

자신에게 어울리는 시간관리법으로 생산적 잠재능력을 신장시키자

이 명 호
<경영학과 교수>

다른 대학 에선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는 제21대 총학생회 정 · 부학생회장 선거를 지난 4일(수)과 5일(목) 실시한 결과 김재용(사과대 · 정외과4) · 박재원(공대 · 재료과4) 군조가 당선됐다.

총유권자 1만2천2백75명 중 6천5백82명이 참여한 김 · 박군은 가운데 3천2백83표를 얻어 49.1%인 학생들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위와같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여러기지 문제점들로 들러쌓인 채 개표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현행 총(여)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에 의하면 시행세칙의 각 항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될 시 경고조치하고 경고 조치 3번되면 후보자격은 박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호1 · 2번 후보들은 유세시 시간초과와 선관위 도장이 찍히지 않는 포스터를 건물에 부착하는 등 시행세칙에 위반을 몇가지 한 채 고발된 상태였다.

지난 5일(목) 오후6시에, 선관위는 개표를 하려다 기호 2 · 3번의 항의로 미루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기호1 · 2번의 포스터건에 대해 같은 경우로 보아 1번의 경고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이 사항이 개표를 연기시키거나 후보를 박탈시킬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개표를 진행하려고 했다. 이에 기호 3번 관계자가 이번 투표는 부효이며 기호 1 · 2번후보들은 사퇴해야 하며 기호 3번에 한해 찬 · 반 투표를 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기호1번 관계자는 선관위가 기호 1번에 대한 2차 유세경고는 경고처리에 대해 시행세칙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때문에 잘못된 조치이고 그럼으로써 후보들이 사퇴할 이유는 없으며 후보들간에 합의하에 시행세칙을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국은 선관위는 개표의 연기를 결정후 선관위와 후보들간의 협의에 들어갔던 것이었다.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에서는 38년의 전통을 지닌 '충대신문'이 학내의 정치기사가 많다는 이유로 안근석(심리학과) 주간교수에 의해 지난달 19일(월)자 제705호가 일방적으로 제작중지 되었다.

대학당국에서는 충대신문 제호를 사용한 '임시특집호외'가 학생기자의 참여를 배제한 채 기획실과 편집간사에 의해 신문발행을 강행하고 있다. 신문사 사장인 오덕균총장은 지난 10월 29일(목) 1차 면담에서 충대신문은 충남대의 기관이며 주간교수 책임하에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1월 3일(화) 2차 면담에서 오총장은 학생기자 참여 없이 제작되는 신문에 충대신문 제호가 나갈 수 없다는 기자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권위적인 태도만 취했다.

충대신문기자들은 "충대신문의 주인인 충대학생들과 함께 억압과 모순에 대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취업정보

추천의뢰처	직 종	모집인원	자 격	기 간
근신산업(주)	기획	남 0명	상경계열, 군필자	11/21
개양통산(주)		남, 여 0명	서반아어 전공자	11/20
(주)세정상사	무역, 관리	여 0명	영어, 경영학전공자	11/2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비서	여 2-3명	영어전공자, B"이상	11/30
네덜란드항공사	여객영업부	남 1명	영어 능통자	11/18
(주)아이콤	관리, 무역, 영업	남 1명	인문, 사회계열	11/28
(주)월드프레이트	영업	남 0명	전공 불문	11/20
(주)대성미생물연구소	무역	남 2명	영어, 무역학전공자 (영어 능통자)	11/18
(주)광명전기		남 00명	상경, 법정, 전산	11/28

학생처 취업보도계

1993. 前期 學生 募集

政策科學大學院 (新設 · 夜間)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명
2. 모집학과 : 공공정책학과(공공정책전공, 공공행정전공, 외교안보정책전공, 북한학전공)
언론학과(신문방송전공, 광고홍보전공)
3. 응모자격 : 가. 4년제대학 졸업자 및 1993년 2월 졸업예정자
(타 분야를 전공한 자도 응시할 수 있음)
나.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4. 시험과목 : 가. 석사학위과정
공공정책학과 : 1) 정치학, 행정학, 정책학 중 택1 2) 영어 3) 면접
언론학과 : 1) 매스컴일반(논문) 2) 영어 3) 면접
나. 연구과정 : 1) 서류 전형 2) 면접
5. 원서교부 및 접수 : 1992년 11월9일(월)부터 11월20일(금)까지
6. 시험일시 : 1992년 11월28일 오후 2시부터
전화 : 961-4093, 965-7046

韓 國 外 國 語 大 學 校

□부산 장림1동 살인 강제철거 현장을 다녀와서

기동취재

"갈 곳도 없는데 죽는 것이 어때"

(주)호승과 당국의 뒷거래, 김선호씨 살해의 근본원인

폭력적이고 대책없는 철거, 투기까지 부추겨 사회적 문제로 대두

부산시 사하구 장림1동 176번지.

부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2시간 가량 가야되는 이 지역은 24여 가구의 빈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조그만한 동네이다. 포장되어 있지 않은 1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왼쪽은 산을 깎아 만든 금강정밀 등의 커다란 공장들이 들어서 있고 오른쪽은 50년대나 볼 수 있는 집들이 한치의 빌어짐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또한 바다를 매립해서 지어진, 폐수처리장을 비롯한 큰 공장들이 집들 우측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 고요한 마을이 어느날인가 포크레인에 의해 5개여 가구가 부서지고 마을 주민이 철거깡패들에 의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월3일(화) 아침 7시경 포크레인 2대와 전경 60여명, 철거깡패 50여명이 강제철거시킨을 고신병원에 안치시키고 5일날 아침에 진상규명 촉구와 구타나 폭력의 증거물이 된 수있는 옷을 탈취해 간 경찰측을 고발하기 위해 부산지방검찰청에 위원장의 7인이 항의 방문을 갔으나 전원 연행되었다. 경찰은 5일 정오에는 전경 6백여명을 병원에 투입해 시신을 지키고 있는 유가족, 주민, 학생 등을 구타하면서 시신을 탈취해가 지금 괄승 부산지방검찰청 부검소로 옮겨 고의적으로 실인을 은폐시키고 있는 상태다.

목에 난 손자국, 가슴과 팔에 난 피멍 등 폭행치사가 분명한데도 검·경찰은 '심장마비이다' '단순치사다'라 주장하며 지금까지도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강제철거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정권의 부도덕성에 있다.

깡패들을 모아놓고 살인청부업을 하는 청산개발(대표 안영평)을 버젓히 공식업체로 인정해 이번 살인 강제 철거에 동원한 것과 본디 바다였던 이 지역을 주민들이 손수 흙으로 땅을 매립해 생활을 해왔는데 시 당국이 뒷거래로 (주)호승에게 팔아넘긴 것이다.

지연매립지는 국유지로써 이것의 불하가 필요하다면 현지 주민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한마디 말도 없이 부정한 행위를 지행한 시 당국에 대해 정경율(59세) 씨는 "제가 20년 전부터 이 지역을 지키며 땅을 일구워 왔는데 지금와서 아무런 대책없이 쫓아내는 것은 부당합니다. 쫓아내려면 이 땅에 상응할 정도의 손해보상을 해야합니다"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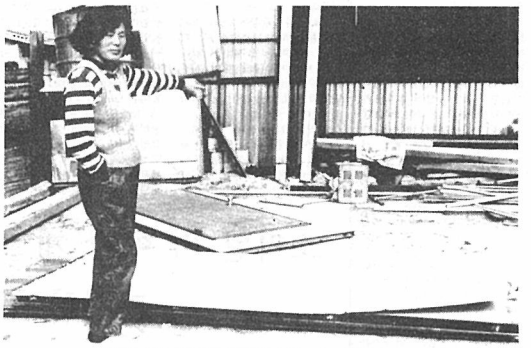
부산대에 대책위 본부를 꾸린 학생, 시민단체들은 동아대, 부산대에서 연일 집회를 가졌고 해운대, 극장 등 시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유인물 배포를 하는 등 계속적인 투쟁을 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주)호승 항의방문, 민주당사 항조요청서 보내기 등을 수행하며 정치적인 대중투쟁을 하고 있다.

현재 주민과 학생들은 잘 알려지지 않아 전국적인 호응을 받지 못하는 강제철거 살인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이들은 요즘 시당국과 (주)호승의 주춤거리는 태도를 이용해 무너진 집을 직접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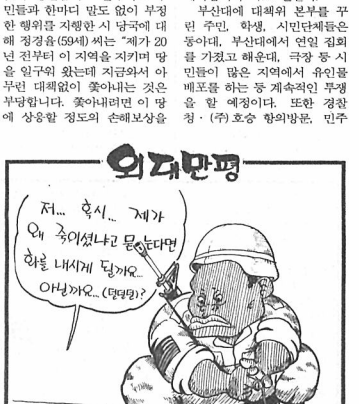
80년대 접어 들어 강제철거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철거 작업에 대해 대책위 집행부 유충호씨는 "철거 진행 과정이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이며 현지 주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라며 "철거의 본격화는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엄청난 불가, 지가 폭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하고 강제철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기만적으로 땅을 매입하다 못해 인명까지 앗아가는 시당국과 (주)호승은 거리를 활보하며 다니고 있다. 하지만 시신조차 보지 못하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는 유가족들의 슬픔은 '이나라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김선호씨 신상에 대한 훼곡과 대책없는 강제철거 철회하고 부산시정과 (주)호승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즉각 경질하라'는 대자보만으로 그 아픔을 전부 메울 수 없을 것이다.

<김남중 기자>



강제철거 도중 살해당한 김선호씨의 집. 지금 한창 복구중이다.



인터뷰

전대협의장 권한 대행 박홍근(경희대 총학생회장)군을 만나

지난 14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공명선거감시대책본부 발족에 즈음하여 전대협의장 권한대행 박홍근(경희대 총학생회장)군으로부터 전대협 대선투쟁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은 정치의식 고양과 사회 구조적 인식의 발달로 올 대선에서는 꼭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정서를 토대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가 바로 92년 대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대선승리를 통해 진정 지주·민주·통일의 시대를 열수 있느냐, 다시 독재의 구렁텅이에 빠지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전국연합에서 채택한 범민주단일후보 안의 배경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87년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총집결해 단결된 투쟁을 펴야만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처음 전대협과 전국연합의 후보안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국연합은 제도야당중 민주당과의 협상만을 생각했고 전대협은 국민당, 신정당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주세력들이 많은 진통을 겪으며 힘들게 결정한 전국연합의 안을 존중하는 것이 87년 대선에서 단결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정권교체를 현실화시키는 방도라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민주당과의 정책협상이 결렬되었을때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민주당과의 정치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전국연합 고광석 대표 등 8명의 공동대표가 두차례 협상을 가졌는데 대부분의 개혁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협이 되지 않은 주한미군철수 등 일부 중요한 부분도 대화가 진행중인데 민주당의 입장이 우리들의 민주대개혁안과 근본적으로 대립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협상이 어긋나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나 당선가능한 야당후보를 찍어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민주단일후보로 대선승리를 이룬 이후 민민운 진영의 위상과 믿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주고 받는다의 자세가 아니라 주체적 관점으로 대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우리들의 개혁안을 일시에 완전히 이룰수는 없겠지만 분명 일보 전진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민중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들의 위상은 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선투쟁에서 국민들과 얼마나 같이 투쟁했느냐에 따르는 것입니다.

전대협의 구체적 대선투쟁 방법은 무엇이고 백만학우들 각자가 할 수 있는 대선투쟁은 어떤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전대협은 크게 3대 투쟁과 2대 조직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정선거감시단을 조직해 부재자투표 실시·부정선거 저지 투쟁, 둘째로 민주대개혁안 선전·실시 투쟁, 세번째는 국가보안법 철폐·양심수석방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대 조직사업을 일만 간부가 일인 백명 학우 만나기와 백만학도의 분임토론 조직화 사업입니다.

백만 청년학생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주변인과 토론·설득작업을 실시하고 공감단의 베찌달기, 스티커 사서 붙이기, 부정선거 감시 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대협 백만학우들에게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12월 18일 밤, 백만학도 모두가 역사와 양심에 부끄럼없이 대통령 선거기표를 지켜보았으면 합니다. 대선투쟁을 최선을 다해 전개해 나간다면 자신있게 개표를 지켜볼 수 있으며 대선 이후 어떠한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줏대있게 투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지혜 기자>

가요의 순

농사짓던 팔뚝을 걷고…

"우리 여성농민 단결가 부르면서 대회장까지 올라갑시다"

지난 12일(목) 오후 1시경 '쌀 전량수매와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92전국여성농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여성농민들로 경희대 정문앞은 다소 붐볐다. '여성농민대회는 불법집회이므로 집회를 불허한다'는 정문앞에 붙은 대학당국의 대자보가 무색할 정도로 힘차게 노래를 부르며 모두들 대회장으로 향했다. 백발이 성한 할머니에서부터 어기꾸나 업은 젊은 아주머니들에 이르기까지 손에 노랫말이 적힌 유인물을 들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사뭇 진지하기만 했다.

"아침 일찍 큰애 학교 보내고 출발한게 거기 도착한거여. 부뿜어야 되는디 오늘은 전국에서 다 모인다니께 이렇게 올라왔지" 쥐라도 해남에서 올라왔다는, 아이를 등에 업은 한 아주머니의 말이다. 옆에있던 한 아주머니도 "무 하루 안뽑아도 여긴 꼭 와야 쓰겠더구만. 그까짓 무 뽑아봐야 얼마 남는다고. 무슨 신이 나야 일을 하지"라며 한 마디 거든다.

줄을 지어 올라간 크라운관 안에는 1천 6백명 가량의 여성농민들이 '쌀 전량수매' '학교급식 실시'라고 적힌 종이깃발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한 손에 아이를 안고 앉아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아주머니들의 모습도 많이 보여, 평소에 가사노동과 농사일을 함께 해야 하는 여성농민들의 고충을 대회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쌀 전량수매와 학교급식 실현'에 대한 각 도·군 여성농민회 서명운동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도 다 소비하지 못하면서 수입까지 하는 정부당국의 행정을 비판하면서, 쌀전량수매와 학생들의 건강, 주부들의 가사노동 감소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급식의 실현'을 요구하였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여성농민들은 생산의 근원이자 생명의 근원인 스스로의 중요한 임무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으며, 대회를 마치고 가두선전전을 위해 줄을 지어 나가는 여성농민들의 모습에서 21세기의 찬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매년 이맘 때면 농민들은 추곡수매기에 애를 태우고 적은 수매량에 한숨을 짓는다. 여름내내 흘린 땀이 보람도 없이 사리저 길에 여성농민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감절이나 된다. 이제 그러한 모순된 농업정책에 항의하며 농업대개혁을 요구하며 여성농민들이 나선 것이다. 서울지만 힘찬 구호소리를 들으며 농업대개혁이 실현된 그날, 농업의 주인으로, 가정의 한 어머니로 당당히 설 여성농민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황효순 기자>

형설출판사 출판안내
110-040 서울 종로구 통의동 7-33 (代)(02)738-6052~4 (FAX)(02)736-7134
700-400 대구 중구 봉산동 152 (代)(053)425-2811 (FAX)(053)425-7315

각종 수험대비 총서
사상과 윤리 국민윤리학회/657면/8,500원
국민윤리 〈주관식〉 국민윤리학회/492면/7,800원
국민윤리 〈객관식〉 국민윤리학회/320면/5,500원
새 한국사강좌 양영환/814면/13,000원
경제학 연습 조점조/1,099면/15,000원
새 경영학연습〈주관식〉 김구배 外4/916면/15,800원
새 경영학연습〈객관식〉 김구배 外4/763면/13,500원
미시거시 경제학연습 김효명/812면/14,000원

사서해설(한글판)
원본 논어집주대전 김정진 역/23면/4,500원
원본 맹자집주대전 김정진 역/39면/5,900원
원본 대학중용집주대전 김정진 역/6면/2,600원
명심보감·고문진보 김정진 역/18면/3,800원

회계원리연습 황석하·이종대/874면/14,000원
면접·취직·유학·성공 배정훈/808면/12,000원
고시행정법정해〈개정판〉 조정환/1,186면/13,000원

동양사상의 이해
중국철학사〈한글판〉 정인재 역/452면/8,000원
중국미술사 손정숙 역/371면/12,000원
중국의 사회사상 중국철학연구회편/398면/6,800원
동양의 자연과 종교의 이해 중국철학연구회/324면/6,800원
동양의 인간이해 중국철학연구회/324면/6,800원

언론사 수험대비총서
수험 매스컴 국어정해 백시영/633면/12,000원
수험 매스컴 영어정해 동리철/621면/11,000원
수험 매스컴 상식정해 김정호/411면/7,500원

대입 영어독해 Reading Master 최상수/411면/5,500원

부동산학 관련총서
토지수용과 보상법 이선영/592면/9,800원
공공용지의 취득보상 김대수/574면/11,000원
감정평가와 보상법론 이창석 外3/682면/14,000원
부동산감정평가론 이창석 外3/646면/12,500원
감정평가사 1차시험〈上〉 이창석 外3/1,178면/17,500원
감정평가사 1차시험〈下〉 이창석 外3/1,173면/17,500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용우/675면/9,500원
도시학개론 노춘희/392면/7,800원
도시계획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474면/9,500원
지역계획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534면/9,800원
지역사회개발론〈객관식〉 김남선/270면/5,500원

수험교육학총서
실전 수험교육학〈上〉 하영철/558면/9,500원
실전 수험교육학〈下〉 하영철/616면/9,800원
실전 수험교육학문제집 하영철/705면/9,800원
핵심 교육학문제집 하영철/713면/9,800원
NEW 핵심 교육학 하영철/875면/14,500원
핵심 일반교양문제집 하영철/751면/9,500원
수험 교육학 논술·면접문제집 하영철/482면/9,800원

한문수험총서
필수한문 백시영/405면/7,800원
한문특강 백시영/199면/3,900원
한자쓰기교본 백시영/143면/3,500원

무역실무총서
수출입절차개요 김기선/402면/7,500원
실전 무역실무 한승철/382면/8,500원
무역실무 이대호/711면/14,500원

수험영어총서
고시영어정해 동리철/911면/12,000원
고시 VOCABULARY 정해 동리철/523면/8,500원
혁신 VOCABULARY 55,000 이창철/478면/8,500원
대학원 영어정해 동리철/559면/9,500원
WORD IN WORD 55,000 이서림·권태영/905면/12,000원

소방·해설·비서·실무
필승 소방법규해설집 최성용/831면/13,000원
필승 소방법규문제집 최성용/525면/9,500원
해부 생리학문제집 윤준희 外2/212면/6,500원
비서실무론〈주·객관식〉 김용식/298면/7,800원
생명보험총론 김용국/777면/16,500원

동작으로 배우는 어린이기초영어 이홍덕 外1/91면/3,000원
그림책·그림카드 9,500원

국민학교 특활영어

수험취업영어정해 동리철/551면/9,000원
영문 2,000제 정해 동리철/670면/9,500원
표준 7급 영어정해 동리철/598면/8,000원
고시TOEFL최종점검 동리철/506면/8,800원
최신 TOP TOEFL 김형덕·윤희수/432면/8,800원
New TOEFL 대학영어교재연구회/429면/8,500원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는 시·수필·희곡수록
국어학습자료집〈上·下〉 (上)534면/4,500원 (下)584면/6,500원

전자계산학총서
COBOL 실무 Programming 조상문 外1/426면/9,500원
데이터 베이스시스템총론 문승천/514면/9,500원
알기쉬운 베이직 백영균 外1/274면/4,800원
MS-DOS 기초와 응용 김형배 外3/300면/7,800원
신경향 전산학개론 김용권/597면/8,800원

표류하는 외대! 학원자주화로 살리자 <열번째>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열악한 교육환경

보도기획

서울캠퍼스는 지난 10월23일(금)부터 파업을 통해 대학당국과 재단의 외대발전에 대한 무성의함을 강력히 항의했다.

용인캠퍼스는 1학기동투때 대학당국과 합의한 내용들의 불이행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양캠퍼스가 앞으로 개선해 나갈 교육환경을 중장기발전 계획안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본교 서울캠퍼스 고시원은 협소한 공간과 투자부족으로 고시합격률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다.

용인 캠퍼스

용인캠퍼스 학생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또 내일 어떻게 학교갈까'하는 교통문제이다. 동투의 성과로 117번 신노선이 확보되고 학교-모현간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용인캠퍼스 간에는 통저을 직행버스 15대, 양재·사당노선 8대, 100-1 시내버스 2대, 17-2시내버스 4대가 운행되고있다. 신노선 확보로 토·일요일 뿐만 아니라 아침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운행을 하고 있어 어느정도 나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들은 학교 직행버스가 아니라 통학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동서울, 양재·사당 방면 직행버스들은 배차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학생들에게 배차시간 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어 여전히 교통문제는 심각한 현실이다. 직행버스의 증차와 광주까지만 운행하는 113번 버스의 학교안까지 연장운행, 학교-모현간 셔틀버스의 증차가 시급할 것이다.

교통문제의 보다 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재단이 운수회사를 직접 운행하거나 경기지역 제2캠퍼스학교들의 순환버스제 도입도 교육당국과 재고해 볼만한 방편이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아울러 94년말에 분당까지 운행되는 지하철이 들어설 경우를 대비해 분당에서 학교까지의 버스노선과 도로정비 문제도 함께 논의되야 할 것이다.

용인캠퍼스가 설립될 때부터 대학당국이 제시해온 마스터플랜 내용은 허울좋은 공상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이계획을 변명으로 대학당국과 재단은 양캠퍼스 교육환경개선을 미루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대학당국이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시행정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 학생들의 대학당국에 대한 의견이다.

기숙사의 경우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3천여명을 수용할수 있는 규모가 되야함에도 불구, 7백여명이 기숙하고 있는 지금의 모현학사의 복지시설은 의료시설만 살펴보다도 쉽게 알 수 있다.

국과 합의한 사항중에 용인캠퍼스의 이공계열을 중심으로하는 특화발전과 의대설립부분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시행일정을 세워나가고 그 속에서 계획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왕산발전위원회는 이런 현실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교육환경부분을 심도깊은 조사와 과학적제계로 그 계획을 서울캠퍼스 외대발전추진위와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사행정 참여와 학원 자주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 캠퍼스

한 대학의 교육환경이 크게 연구기능과 복지시설을 기준으로 평가된다고 할때 본교 서울캠퍼스는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연구기능에서의 문제점은 교수들의 연구실이 한 건물로 분리되어 있는 타대학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부족하다. 또한 한 대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의 시설은 협소한 공간문제를 제쳐두고라도 다양한 서적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본교생들이 타대학의 도서관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 10월 또 한차례 진통을 겪었던 고시원문제, 본교를 대표하는 시청각교육원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투자 미비로 타대학과의 차별성이 모호해 지고 있다.

복지시설은 이 보다 더 열악한 상태이다. 먼저 학생회관의 경우 매년 동아리인의 방배치 문제로 학생들 사이에 마찰을 빚는가 하면 보건실시설은 찾는 학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간문제는 80년대 초 본교중앙화 대체에 따른 건물신축사업이 활발하던 시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던 서울캠퍼스의 부지확충을 고려하지 않았던 오류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종합대학교로의 승격을 위해 학부신설이 필수적인 관계로 법정, 상경계열 등이 신설되고 도서관, 시청각교육원, 대학원 등 건물신축을 통해 양적팽창을 거듭해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둔것은 사실이나 이후 85년 '7·30교육조치'에 따라 졸업정원제실시와 대학중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공간문제는 표면화 되었다.

그 시기 학생들 사이에 부지확장방안논의가 진행되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자곡동으로의 캠퍼스이전도 고려되었던 사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문제제기는 92년 하반기 서울캠퍼스의 전면파업으로 불붙은 '외대발전운동'에서 분출된 자곡동이전의 열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목) 최종합의서가 도출되면서 학자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라는 한마디로 본교재단이 거부해오던 자곡동이전안이 실현을 위해 '자곡동 그린벨트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에 공동노력한다는 문구에 대학당국이 합의함으로써 일단은 이전가능성의 통로를 연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서는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을 그린벨트 해제 후로 미루고 있어 원전미해결 상태로 남았다는 평가도 적잖다. 이렇듯 그린벨트해제와 기일과 이전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장 시급한 서울캠퍼스의 교육환경개선책으로 장기적으로 면적확대를 통한 건물신축과 단기적으로 건물보수와 내부시설보완책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물신축의 기한과 장소, 사용용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후 이 사항들을 결정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각 단위별로 대대적인 설문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축건물사용 용도로 제2학생회관과 도서관을 비롯 교수들의 연구소를 한 건물로 독립시키고 법정, 상경계열의 분리와 기숙사설치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의서자체가 실행여부는 전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호지부지되어 왔던 이전의 상황들을 극복해내기 위해 각 과별로 과발전추진위원회와 총괄단위인 외대발전추진위원회의 위상정립이 선행되어져야 하겠다.

또한 현재 9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자곡동으로의 캠퍼스이전의 사회여론화 작업으로 '10만 외대인 서명운동' '각 언론사, 정당방문'등 단기사업뿐만 아니라 이후 예결산공개와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의 진척상황과 향후전망등을 발표하는 공개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내는 작업들도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김영화 기자>

서울, 캠퍼스 이전만이 근본적 해결책

용인, 교통문제 해결·대학촌 건설 시급

◇본교 법정, 상경계열 취업실태 분석

전공 살리지 못한 취업이 문제

흔히 본교의 상경대, 정과대, 법대를 가르켜 '외대의 그늘 또는 찬밥'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본교가 외국어교육에 비중을 상당히 두고 우수교원의 확보와 외국어실습교재의 확충을 통해 나름대로 타대학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비언어계열에 대한 지원은 너무 빈약해 대학당국과 기업체로부터 무관심의 대상이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대외적으로 비어학계열의 지명도가 낮아짐에 따라 취업준비생의 취업문제와 연결이 되어 해마다 어학계열보다 비언어학계열의 취업률 59.8%, 순수취업률 46.7%이다. (92년 4월1일 기준)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 취업률에 있어 정과대가 6.7%, 상경대가 15.2%가 감소되고 순수취업률에 있어서도 정과대가 13.5%, 상경대가 2.8%감소되었다.

상경대의 취업동향을 살펴보면 각학과별로 별 상관없이 대개의 경우 전공과 관계되는 대기업, 외국기업등의 일반기업과 은행, 투자신탁등의 금융기관(상경대 순수취업의 70%)에 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작년대비 전체 취업률 15.2%, 순수취업률 2.8%나 감소에서 보여지듯이 그동안 본교에서 제일 전망이 좋아 다방면으로 안정적인 사회진출의 가능성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우려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경대 취업률 저하의 현상에 대해 상경대의 한학생은 "상경대 건물을 하나도 아닌 두개의 단대와 같이 쓰는가 하면 현시대에 맞는 제대로된 전산실 하나 없는 학교가 취업이 제대로 될 턱이 없다"고 취업률 저하현상이 주이유를 낙후된 교육환경에서 찾고 "학문자체가 많은 연구와 실습이 필요한 관계로 현대화되고 자동화된 교육시설확보가 우선돼야 장래성있는 사회진출이 가능하다"며 교육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무역, 경제, 정영학과로 이루어진 상경대는 사실상 학과별로 커리클럼이 별반 차이점이 없어 특성있는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방과, 행정학과, 정외과로 이루어진 정과대의 취업동향의 경우는 상경대와는 달리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보다는 주로 일반기업체와 국영기업, 보험회사등에 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고시·외무고시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대학당국의 고시생지원의 소홀과 커리클럼의 부족으로 점점줄어들어 합격률이 저조해지면서 사회진출의 경향도 취업을 하기가 대체로 무난한 일반 사기업체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과대의 경우는 비어학계열 중 유일하게 전체 순수취업률이 전년과 대비해 각각 0.9%와 10.2%로 전년과 대비해 상승하여 취업률 2위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는 변호사·일반 행정직등 법과대의 특성과 법대생들의 희망과는 무관하게 보험회사·외국은행등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순수취업의 8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함께 법대생들은 지난 10월21일(수) 고시원 이전을 요구하며 학생처장실 점거농성에도 보여지듯이 군법무관시험과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법고시원의 공간협소와 재정미비로 인한 취업특강, 도서구입량의 부족과 부전공제도의 부활과 무자격 업체 대표가 짜고 군 물자를 빼돌려 이익금을 챙겼다는 것.

해방이후 그 모진 군화발로 민초들을 짓밟아 온 것도 서러운데 권력으로 안되니까 이제는 사기를 …,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새 삶을 시작하도록 각인하시압.

○…알프스 하얀이야 보다도 어려운 대통령 정상을 정복하기 위한 동반대가 민자네 집에서 활동 중.

민자당 총재 03이가 '민주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빌어 불법선거운동을 지행해 민초들의 분노를 사고 있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고, 중도에서 고기구워 먹으며 지연체손말고 일찍감치 내려와 가까운 남산약수터나 정복하시압.

○…왕산골에 지독한 구두쇠인 영주가 있다는데.

크로니클자 알아본즉 왕산골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어느 도련님이 하늘을 닫으는 묘기를 하다가 그만 싱하게 다쳐 병원비도 없어 흙산들 걱정이 태산인데 영주는 나 몰라라 한다고.

무덤에 돈을 깔이 파묻는 것도 아닌데 영주가 아량을 베풀어 병원비 대주면 되지 않을까.

○…13일의 금요일 아침, 이문벌을 헐레벌떡 달리는 흙산, 커피잔을 들고 눈을 비비는 등 유달리 분주한 모습으로 흙산들이 업동설한에 때아닌 봄몸경을 연출했다는데.

'자곡동으로 가지'는 구호를 앞에 걸고 단행했던 과업투쟁을 승리적으로 끝마치고 첫 수업을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혹시나 오해할지도 모를 총장님, 수업복귀는 투쟁의 끝이 아니라 투쟁의 또다른 방법임을 아시죠!

오해

쓰레기 침소

○…쓰레기 먹는 들 어떠하리, 땅 투기해 돈먹는 들 어떠하리.

시를 해석해 보니, 난지도 쓰레기장이 포화상태여서 김포로 이동하려 하자 주민들 '정부는 근본대책 마련하라' 고 주장한 반면, 재벌들은 난지도 땅투기에만 관심.

크로니클자 제안컨데, 민초님들, 한반도 땅 제대로 쓰기 위해 정권과 재벌 쓰레기부터 같이 치우실래요.

○…군말이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간인 시대가 도래하는 황혼의 무렵, 마지막 발악의 함성이….

알고본즉, 군수사령부 간

소외된 비 어학 계열 과감한 투자 있어야

비둘기 칼럼

이문벌

■찾아가세요.

도서관 1층 개가자료실에서 경제학원론책과 함께 DAVID라고 씌여져 있는 남자용 18금 반지를 분실하신 분 학보사에 오셔서 찾아가세요.

<다정한 비둘기>

■제3회 광고영화제

때 : 11월18일(수)~19일(목) 늦은 1시, 3시
곳 : 시청각 영사실(2210)
주제 : 92칸느 광고영화제 수상작 외

<신방과 광고학회>

■일본 고베대학 초청경기

때 : 11월21일(토) 이른 10시
곳 : 대운동장

<핸드볼부>

■사은회

때 : 11월19일(목) 늦은 5시
곳 : 미네르바

<서어과 4학년>

■노어과 과회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11월13일(금) 우천에도 불구하고 붉은 광장에서 학생회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제14대 학생회장에는 정원락('91) 학형이 당선되었습니다.

<노어과 선관위>

■마인어과 과회장 선거합니다

후보등록기간 : 11월13일(금)~16일(월)
후보유세기간 : 11월17일(화)~18일(수)
선 거 일 : 11월19일(목)

<마인어과 선관위>

■민중대통령 후보 설명회

때 : 11월19일(목) 늦은 5시
곳 : 0326

<민중대통령 후보지지를 위한 영어과 학생선거본부>

왕산골

■신입회원 대모집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대학생활을 해나갈 참신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얼마남지 않은 대통령선거에 중요하게 제시되는 공정보도를 위해 선거보도 모니터요원도 모집합니다.

<기독학생회 SCA>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5천학우 작은 정성모으기 3일장터

때 : 11월18일(수)~20일(금) 이른 11시부터 늦은 5시
곳 : 학생회관 앞마당
품목 : 옷, 악세사리, 화장품, 참고도서, 자취생활품
각과 학회방 및 단대별 모집함

<민주당 재집권 저지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애국외대 운동본부 지원사업단>

■ALA정기총회

때 : 11월18일(수) 늦은 5시30분
안건 : 차기회장 선출
2학기 사업평가

<AFKN 청취반>

■종강총회 합시다

때 : 11월26일(수) 늦은 5시30분
안건 : 2학기 행사보고
92년 결산보고

<통계학과 학생회>

■축하합니다

일곱번째 맞는 FBS방송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4대 언론협의회>

■과회장 당선을 축하드려요

투마니아어과 : 최성국,
체코어과 : 주창석, 항가리어과 : 한석준
유고어과 : 박현일, 무역학과 : 서한승,
통계학과 : 조석현, 아프리카어과 : 박제홍

<다정한 비둘기>

■대생협 2학기 정기총회

때 : 11월19일(목)
안건 : 92년 사업보고
92년 1학기 결산보고및 2학기 가결산보고 질의응답
93년 정·부 조합장 선출
우수과 시상—가장 조합원이 많은 과

<대학생활협동조합>

■제7회 FBS 방송제

때 : 11월17일(화) 늦은 4시
곳 : 지연대강당
고녀하는 지성과 만나세요

<FBS 방송국>

동문회

(이문)

서호고

때 : 11월 20일(금) 늦은 5시
곳 : 깡통

(왕산)

대일외고

때 : 11월 17일(화) 늦은 5시30분
곳 : 승차장휴게실 시계앞

성보고

때 : 11월 20일(금) 늦은 5시30분
곳 : 학생회관 식당

공명선거 다짐 국민대회 열려

군부독재 척결 · 정권교체 실현 다짐

지난 14일(토) 오후3시 장충단공원에서는 2천5백의 시민 ·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대회가 열렸다.

지난 14일(토) 오후 3시 '공명선거실천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대회'가 국민회의 주최로 장충단공원에서 열렸다.

이에앞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는 소속학생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국대에서 '대선운동발족식'을 가졌다.

시민, 학생, 국민회의관계자 2천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국민대회에서는 공명선거실천을 위한 대국민 결의문을 채택, 낭독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강희남(국민회의 공동대표) 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국민주권을 지키고 바르게 행사하는 운동과 공정보도 실현을 목표로 전국 각지에 공정선거감시단을 조직하고 부정선거고발센타를 설치하겠다"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민회의 집행위원장 김근태씨는 광복후 40여년간 계속된 군부독재정권을 척결하고 정권교체의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7대방침과 5대원칙을 공표했다.

내용으로는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총단결 △각 부문계열의 운동 △계층, 지역별조건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 △부재자 투표율 1백퍼센트 완료와 투표참여운동전개등을 7대방침으로 선정하고 5대 원칙으로 △충동원 · 총결집 △전위참여 전원투표 △검찬함과 당당함 △지주성과 주체성을 갖고 이후 사업을 전개해 나갈것과 이를통해 △대중적 원칙을 고수해 나갈 것을 선포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지난 10월31일(토) 미군에 의한 윤금이씨 살해사건이 발표됨에 따라 사건발생지역인 동두천 시민들이 연일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민주시민회 회장이교정씨가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일정별로 설명했다. 이 씨는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빌미로 살인미군을 구속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검찰은 사대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양심을 회복하라"라고 촉구하면서 "반미구국의 선봉 전대협소속 학생들이 도움이 절실이 요구되는때"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 날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청앞 주민교회에서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성남본부'가 발족식을 가졌다.

성남연합에 소속된 각계각층 단체대표가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 신창균(국민회의 공동의장) 씨는 기념사를 통해 "이땅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 역량을 통일, 집중한 단체인 국민회의가 성남에서도 발족식을 가지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축하했다. 행사를 마친 후 용인 · 성남지역 소속학생 5백여명과 시민들은 성남시청앞 집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성남외환은행앞에서 '민자당 재집권저지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지고 상대원시장까지 촛불행진을 벌였다.

대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주정부수립과 민주대개혁을 위한 범국민단체인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공명선거실천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소집하고 결의대회와 거리선전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백혈병 치료위해 오는 4일 '사랑나눔 콘서트' 열어

오는 12월4일(금) 오후7시, 5일(토) 오후5시 양일간 한양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는 본교 서양어대 스웨덴어과 황모양의 동생 황정길군의 백혈병치료비 마련을 위해 '사랑나눔 콘서트'를 연다.

이 콘서트에는 박정운, 이상우, 조용필등 인기유명가수들이 출연할 예정이며 입장료는 1만원이다.

이러한 사실이 학내에 알려지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이번 행사에 대해 "한생명을 살리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행사"라고 평가하고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정적인 도움과 홍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과학생회 선거 돌입

단대 · 총학선거도 곧 실시될 듯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파업과 관련해 그동안 미루어왔던 학생회 선거가 과학생회장 선거를 계기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1월5일(목) 한교과 학생회장 선거를 시작으로 인도어과, 태국어과, 이란어과 등이 현재 선거가 치루어졌으며 아직 선거를 치루지 않은 영어과, 중국어과 등 대부분의 과들이 12월 안으로 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범대, 동양어대 등의 단과대나 총학생회선거는 총집행부회의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아직 정식으로 논의를 한 바는 없으나 2학기 중 선거를 치루지 않을 경우 겨울방학 중 새학기 사업의 구상과 논의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대부분의 학생회 학생들은 올해 안으로 선거가 치뤄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아직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학생회 선거시기를 결정하지 않아 서불리 말할 수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번 단과대 선거나 총학생회 선거는 외대발전운동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선에서 시급히 결정이 나야한다"고 언급해 학생회 선거를 2학기가 끝나기 전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했다.

한편 이러한 학내분위기와 따라 민족해방조직, 진보학생연합 · 전국정치학생연합 외대추진위 등은 본격적으로 학생회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교생, 사법고시 4명 합격

군법무관·CPA도 3명 합격

지난 10월24일(토) 실시된 사법고시, 군법무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본교생 7명이 최종 합격했다.

사법고시연구실에서는 지난 11월9일(월) 교내 합격축하 플래카드게시를 통해 사법고시에서 박동수(동양 · 마인어 77), 유홍준(법 · 법학 87), 이강렬(서양 · 스웨덴어 83), 남상렬(법 · 법학 83) 군이 합격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군법무관 시험에서도 안종근(법 · 법학 85), 전용우(법 · 법학 87) 군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신동운(서양 · 스웨덴어 87) 군이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용성총련, 운봉본부 발족식 개최

본교 지원사업단은 바자회 예정

용인 · 성남지구 총학생회연합(용성총련)은 지난13일(금) 경원대에서 '민자당 재집권 저지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용성총련 운동본부 발족식'을 개최했다.

용인캠퍼스 1백50여명의 학생을 비롯한 용성총련 소속 7개 여행이 참석한 이날행사에서 이성일(용성총련 의장 권한대행 · 경희대 부총학생회장) 군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민주대개혁을 실현하여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민주정부를 수립하자"고 결의했다.

이에앞서 용인캠퍼스 대선운동본부는 학생회관 앞에서 발족식을 거행한 뒤 성남에서 거리유보전을 벌였다.

한편 용인캠퍼스 대선운동본부 지원사업단은 오는 18일(수) 부터 20일(금) 까지 학생회관앞에서 민자당 재집권 저지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운동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번 바자회는 학생들이 직접 기탁한 각종물품을 판매하며 사진전시회, 영화상영등 다채로운 수익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용인 대선협 · 동연, 전태일 열사 추모와 대선관련 비디오 상영

용인캠퍼스 대학생활 협동조합(이하 대생협) 은 후생복지관 식당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5시부터 전태일 열사추모 22주기를 맞이하며 비디오 상영회를 연다.

대생협은 지난주부터 전태일 열사 기념주기로 정하고 △과업전야 △과업 △장순이 수퍼프로덕츠 노동자들의 비디오를 상영하고 있다.

또한 동아리연합회 대선운동본부도 학생회관 로비에서 매일 오후1시부터 비디오를 상영한다. 이번주인 16일(월) 부터 87년 구로 구청 부정투표사건과 관련된 시민들의 구로항쟁의 기록영화와 KBS 방송민주화투쟁, '언론/ 알고봅시다'등의 비디오를 상영할 예정이다.

서울 동양어대 자료집 발간 예정

서울캠퍼스 동양어대학생회에서는 학생회 · 학회활동의 활성화를 모색코저 '꽃들에게 희망을' 제2호를 곧 발간할 예정이다.

동양어대는 지난학기 '진보와 지성의 공동체 화원'을 만들자는 목적하에 발간된 '꽃들에게 희망을' 1호가 학생들로 부터 큰호응을 불러일으키자 다시 2호를 발간하기로 했다.

사범대, 어제 풍물극 공연 윤석양씨 수배생활 묘사

서울캠퍼스 사범대학생회와 영교과 풍물패에서는 어제(16일) 오후 5시 인문관 대강당(1210) 에서 '당신도 수배중입니다'라는 풍물극을 공연했다.

이번 풍물극은 지난 90년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본교출신 윤석양씨의 수배경위및 수배기간동안의 생활에 대해 약 1시간동안 공연이 됐다.

이지리에서 풍물극을 공연한 학생들은 윤이병의 탈영과 양심선언은 '헌법상의 지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형법20조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행위라고 묘사하고 윤이병의 석방과 명예제대를 요구했다.

교직원동정

◎정외과 김계수교수, 정년퇴직전 마지막 특강 열어

본교 김계수(정외과) 교수는 오는 19일(목) 오후 3시 대학원 강의실(6104) 에서 '정치학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특강을 연다.

◎법학과 이장희교수, 신간서적 출간

본교 이장희(법학과) 교수는 지난 10월 24일(목) 타대학 교수 3인공저로 '남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나남 출판) 라는 책을 출간했다.

◎노어과 기연수교수, 지난9일 도서관 도서기증

본교 기연수(노어과) 교수는 지난 11월9일(월) 모스크바 국립대학에 교환교수로 재직할 당시 입수한 러시아어 백과사전등을 비롯 21권의 책을 도서관에 기증했다.

◎여직원 초록회, 자선바자회 개최

본교 여직원 동우회 초록회에서는 어제(16일) 부터 18일(수) 까지 3일간 대학원 소강당에서 각종의류등을 40%에서 70% 싼 가격으로 '봄우이옷돕기 자선바자회'를 개최한다.

학과움직임

◎서울 화란어과, '모교방문의 날'행사 열어

서울캠퍼스 화란어과에서는 지난 14일(토) 오후5시 대학원 강의실(6105) 에서 '모교방문의 날'행사를 가졌다.

동아리 소식

◎서울 야구부, 15일 아마추어 추계대회 우승

서울캠퍼스 야구부(H · U · F · S)는 지난 15일(일) 건국대 야구장에서 벌어진 '추계야구대회' 건승전에서 건국대를 14대 6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 해외문학회, 19일 정기세미나 개최

서울캠퍼스 동아리 해외문학회에서는 오는 19일(목) 오후5시 대학원 강의실(6104) 에서 헤르만헷세의 '유리알 유희'라는 작품을 가지고 '92정기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인 그림사랑, 전시회 개최

용인 캠퍼스 판화 및 민화에 술모임 그림사랑에서는 오는 16(월) 부터 18(수) 까지 학생회관 전시장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이사람

"…젊은 놈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목숨을 걸고 아거스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로써 24일째 기자실적재한 철회 및 편집자율권 쟁취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본교 영자신문사 '더 아거스'편집장 홍기삼(서학 · 학가리3) 군이 11월 5일(목) 마지막으로 열린 신문사운영위원회(이하 신문사운위)에서 결의한 발언이다.

10월 24일부터 제작중지에 들어간 영자신문사는 그간 여러차례의 신문사운위를 거쳤지만 아직도 사태의 수습을 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투쟁일정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적인 이외에는 아직 한 일이 없다"며 "앞으로는 서명운동도 벌여 학우들과 함께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각오를 하는 홍군의 뒤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서 있는 듯했다. 실제로 이번 아거스 제작중지에 즈음하여 서울지역영자신문기자연합(이하 서영련) 에서는 상명여대에서 지난 7일(토) 23개 영자신문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투쟁기금마련과 지지대자보, 플래카드 등의 선전활동에 동참한 상태이다. 홍군은 "노정권에 의한 지행된 학원안정화대책의 배설물은 내년에 또한번의 싸움을초래할 것이다"라며 "아거스가 무너지면 외대가 무너지고 그로인한 반합의 빌미를 낳지 않기 위해서 아거스가 최전선에서 투쟁해야 한다"는 결의를 내보인다.

"아거스 제작중지 조치로 인해 스승과 제자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현실이 가슴아픕니다."

<본교 영자신문사 홍기삼군을 만나>

이제 막 기사를 쓰려고 하는 1학년 기자나 아직 잘 적응이 안된 수습기자들을 안쓰럽게 생각하는 홍군은 "대학언론에 대한 명확한 위상이 부족한 1학년들이 어려운 싸움을 잘 견디어 내니 대견하다"는 말과 함께 "투쟁속에 변화 발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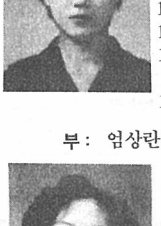
대학언론의 자주성을 단지 학칙으로써 묵살시키려는 정권과 그것에 발맞추어 나가는 대학당국은 50일의 파업을 승리고 이른 MBC노조의 공정방송 쟁취투쟁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국민이 방송을 지켜보듯 학생들은 아거스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다.

"스승과 제자의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현실이 가슴아프다"며 그간에 갈라져 가는 교수님과 학생들간의 괴리감을 걱정하는 홍군은 "그래도 처음과 끝을 맺는 것은 우리 아거스가 할 일"이라며 시작한 싸움을 부의미하게 끝내는 일은 보이지 않겠노라는 다짐과 "학교나 우리 신문기자들 모두 정권에 희생당한 자들인 만큼 공동으로 정권과의 싸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또하나의 다짐으로 앞으로의 투쟁의 지를 보인다.

<이승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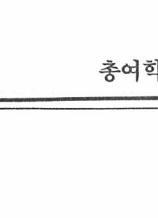
총여학생회 정 · 부회장 후보

정: 최영미(서학 · 루마니아어 4)



1971년 강원도 강릉출생
1989년 서울 휘경여고 졸업
1989년 본교 동구어대 루마니어과 입학
루마니어과 학회 '디딤돌'활동
1990년 루마니어과 학생회 홍보부장역임
1992년 서양학대 학생회 여학생부장
1992년 제4대 총여학생회 부총여학생회장 역임
1992년 제5대 총여학생회 회장입후보

부: 엄상란(서학 · 불어 4)



1971년 서울출생
1989년 선일여고 졸업
1989년 본교 서양학대 불어과 입학
1989년 불어과 학회 '어울'활동
1990년 제11대 총학생회 선전부활동
1991년 제12대 총학생회 편집부장 역임
1992년 제4대 총여학생회 취업실태 조사반장 역임
1992년 제5대 총여학생회 부회장 입후보

총여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대학생활협동조합 정 · 부회장 후보

으뜸빛: 황영묵(사학 · 89)

70년 서울 출생
89년 서울 성남고 졸업
본교 사학과 입학
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반 가입
90년 사학과 학생회 학술부 차장
한국근현대사연구반 반장
91년 사학과 학생회 학생회장
경인지역 사학과 연합 의장
인문대학생회장 권한대행
92년 인문대학생회장
제4대 대학생활협동조합 조합장 입후보

버금빛: 김현국(중국어 · 91)

72년 강원도 영월 출생
91년 영월 마차고등학교 졸업
본교 중국어과 입학
학회 사회과학반 가입
동아리 국토순례반 활동
92년 1학기
대생협 교육 · 홍보부장
2학기 대생협 선전국장
제4대 대학생활협동조합 부조합장 입후보

공 약 요 점

제4대 대학생활 협동조합 조합장 후보 정) 황영묵 부) 김현국이 하고자 하는 일은 이러합니다.

1. 대학생활협동조합 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1) 조합원의 대표자모임인 대의원회 구성
 2) 교비의 확충
 3) 각 사업장별 운영위원회 구성

2.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 조합원 신문(별바라기) 을 통한 생활문화운동의 공유
 2)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화
 3) 외부 민주, 환경단체와의 연대사업 추진
 4) 소비자운동의 전개

3. 학우들의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1) 학내사업개설을 위한 여론함 설치
 2) 자동응답전화기 설치

4. 장학기금을 확대하겠습니다.
 1) 5개년 계획 5천만원 장학기금 조성
 2) 자판기 상환금 이전과 함께 장학기금으로 환용
 3) 등록금인상에 비례한 근로복지 장학금 확충

5. 학내복지 사업을 정리, 확대하겠습니다.
 1) 후복관 건설 추진
 2) 신강의동내 초현대식 식당개설 (90, 91년도 학자합의사항)
 3) 어문관식당, 인사대 매점 직영

6. 우리의 요구를 모아 나가는 민주대개혁 실현을 위해 학우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생활 협동조합의 모든 사업은 학우들과 함께 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왕산의 주인으로 일어 나도록 합시다.

대학생활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1993학년도 신 입 생 모 집 요 강 (전기 및 후기분할)

1. 모집학과 및 입학정원

대 학	계 열	학 과 (코드번호)	입학정원 전 기	입학정원 후 기	입학정원 계
서양어대학	인 문	영어과 (01)	75	75	150
		불어과 (02)	50	50	100
		독일어과 (03)	50	50	100
		노어과 (04)	25	25	50
		서반아어과 (05)	50	50	100
		이태리어과 (06)	15	15	30
		포르투갈어(브라질어) (07)	15	15	30
		화란어과 (08)	15	15	30
		스웨덴어과 (09)	15	15	30
동양어대학	인 문	중국어과 (10)	50	50	100
		일본어과 (11)	50	50	100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12)	15	15	30
		아랍어과 (13)	25	25	50
		태국어과 (14)	15	15	30
		베트남어과 (15)	15	15	30
		인도어과 (16)	15	15	30
		터키어과 (17)	15	15	30
		이란어과 (18)	15	15	30
정책과학대학	인 문	정치외교학과 (19)	25	25	50
		행정학과 (20)	25	25	50
		신문방송학과 (21)	25	25	50
법과대학	인 문	법학과 (22)	75	75	150
상경대학	인 문	무역학과 (23)	45	45	90
		경제학과 (24)	40	40	80
		경영학과 (25)	45	45	90
사범대학	인 문	영어교육과 (26)	15	15	30
		불어교육과 (27)	15	15	30
		독일어교육과 (28)	15	15	30
		한국어교육과 (29)	15	15	30
*인문대학	인 문	철학과 (30)	20	20	40
		사학과 (31)	20	20	40
		언어학과 (32)	20	20	40
*서양학대학	인 문	영어과 (33)	60	60	120
		불어과 (34)	40	40	80
		독일어과 (35)	40	40	80
		노어과 (36)	25	25	50
		서반아어과 (37)	40	40	80
		포르투갈어(브라질어) (38)	25	25	50
		이태리어과 (39)	25	25	50
		불란드어과 (40)	20	20	40
		루마니아어과 (41)	20	20	40
		체코어과 (42)	20	20	40
		항가리어과 (43)	20	20	40
		유고어과 (44)	20	20	40
*동양학대학	인 문	중국어과 (45)	25	25	50
		일본어과 (46)	20	20	40
		아랍어과 (47)	20	20	40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48)	20	20	40
		태국어과 (49)	20	20	40
		아프리카어과 (50)	20	20	40
		인도어과 (51)	15	15	30
*사회과학대학	인 문	무역학과 (52)	25	25	50
		경제학과 (53)	25	25	50
		경영경제보학과 (54)	20	20	40
*자연과학대학	자 연	수학과 (55)	20	20	40
		물리학과 (56)	20	20	40
		화학과 (57)	25	25	50
		전자계산학과 (58)	25	25	50
		환경학과 (59)	25	25	50
		미생물학과 (60)	25	25	50
		통계학과 (61)	20	20	40
		제어계측공학과(신설) (62)	20	20	40
총 계		62개학과	1,670	1,670	3,340

* 표로 표시된 대학은 경기도 용인에 소재함

2. 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자 및 1993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지원방법

가. 본 대학교내 또는 타대학(교)과의 이중지원(원서 2매이상 제출)은 무효로 처리한다.
나. 제2지망까지 허용하되 제1지망과 중원계열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으며(인문계와 자연계 교차지망 금지), 일반계대학 지원자는 제2지망으로 사범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
다. 사범대학 지원자의 제2지망은 사범대학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라. 선택과목은 실업 또는 제2외국어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한다.
마. 지체부자유자(맹인, 약시, 뇌성마비)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전기모집에 합격한 자는 후기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전기 또는 후기모집에 합격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4. 전형방법

가. 전형과목 및 배점
(1) 일반계 대학(사범대학을 제외한 인문계·자연계 대학)
대학입학 학력고사성적, 고등학교 내신성적, 면접 및 신체검사로 전형한다.

구 분	학력고사성적	고교내신성적	계
비 율	70%	30%	100%
점 수	340점	145.7점	485.7점

(2) 사범대학
대학입학 학력고사성적, 고등학교 내신성적, 면접고사성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성적, 신체검사로 전형한다.

구 분	학력고사성적	고교내신성적	면접고사성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성적	계
비 율	60%	30%	5%	5%	100%
점 수	340점	170점	28.3%	28.3%	566.6점

나. 제1지망자 중에서 입학정원의 80%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20%는 제1지망 탈락자와 제2지망자 중에서 선발한다.
다. 인문계대학(자연과학대학 제외)에 지원하는 자가 선택과목으로 제2외국어를 선택한 경우 제1지망(입학정원의 80%)에 한하여 제2외국어 과목 취득점수의 10%를 가산 전형한다.
라. 교육부 주최 전국고등학교 외국어학력 경시대회에서 "동상" 이상으로 입상한 자중 영어과목 입상자는 4점 불어 및 독일어과목 입상자는 각각 2점씩 가산 전형한다.
마. 사범대학에 지원하는 자는 별도로 면접고사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한다.
바. 일반계대학 지원자의 면접은 합격, 실격자의 자료로 활용한다.
사. 학력고사의 과목별 난제점수제는 없으며, 전과목의 총점으로 성적순위를 결정한다.
아. 교포 및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특별전형한다.
자. 예·체능계 특기자는 특별전형을 하지 않는다.
차. 서류위조 및 부정행위자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5.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 및 전산카드(본 대학교 소정양식) 각 1부
나. 석차연명부 사본(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1부
다. 사진(3cm×4cm 동일원판)2매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탈모 반명함판으로 입학원서 소정란에 부착
라. 검정고시 합격증 및 제적증명 및 제적증명 사본(검정고시 출신자에 한함) 각 1부 : 원본은 예비소집일에 반환
마. 최종출신학교장의 사법계대학 입학지원 추천서(사법대학 지원자에 한함) 1부 : 입학원서 후면 소정양식 이용
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사법대학 지원자에 한함) 1부
사. 외국어학력 경시대회 입상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신체검사

가. 신체검사는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나. 신체검사에 불응한 자는 전형에서 제외한다.
다. 다음의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 유전성 질환, 수학에 지장을 주는 내과적 질환을 가진 자
(2) 수업, 실험·실습, 실기 등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고, 제3자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수강 및 수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수학이 불가능한 자
(3) 사범대학 지원자중 교사로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대상자)

7. 학력고사 시간 및 계열별 고사과목

교 시	시 간	계열별 고사과목 인문계	계열별 고사과목 자연계
1	08 : 40-10 : 00 (90분)	국어(한문 상 포함) 국사	국어(한문 상 포함) 국사
2	10 : 40-12 : 30 (110분)	일반수학, 수학Ⅰ (경치, 경제, 사회, 문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 ( )단위 택2	일반수학, 수학Ⅱ (경치, 경제) (한국지리) (세계사) } ( )단위 택1
3	13 : 30-15 : 00 (90분)	영어 농업, 독일어 공업, 프랑스어 상업, 중국어 수산업, 일본어 정보산업, 에스파냐어 가사 } 택1	영어 농업, 독일어 공업, 프랑스어 상업, 중국어 수산업, 일본어 정보산업, 에스파냐어 가사 } 택1
4	15 : 30-17 : 10 (100분)	문학, 작문, 문법 국민윤리 과학Ⅰ상 과학Ⅰ하 과학Ⅱ상 과학Ⅱ하 } 택1	국민윤리 물리 화학 생물 (과학Ⅰ상 포함) 지구과학 (과학Ⅰ하 포함) } 택2 (물리, 화학 중 택1)
5	17 : 30-18 : 00 (30분)	면 접	면 접

가. 사법대학 지원자의 면접고사,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시간계획 : <별표> 참조
나. 수험생은 학력고사 당일 08시 10분까지 해당 고사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8. 입학전형 일정

모집구분	내 용	일 정	장 소	비 고
전 기	1. 입학원서 및 모집요강 교부	1992. 11. 20(금)-11. 27(금)	서울캠퍼스 총무과 용인캠퍼스 총무과	용인캠퍼스 지원자도 서울캠퍼스에서 교부
	2. 입학원서 접수	1992. 11. 20(금)-11. 27(금) (09 : 00-17 : 00)	서울캠퍼스 교무과 용인캠퍼스 교무과	용인캠퍼스 지원자도 서울캠퍼스에서 접수
	3. 예비소집 및 수험표 교부	1992. 12. 21(월) (14 : 00)	서울캠퍼스	접수증 지참
	4. 입학전형 가. 학력고사	1992. 12. 22(화) (08 : 40-17 : 10)	서울캠퍼스	상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예비소집시 수험생 유의서 참조
	나. 면 접	1992. 12. 22(화) (17 : 30-18 : 00)	서울캠퍼스	학력고사 당일 실시
	다. 교직적성및 인성검사	1992. 12. 23(수)-12. 24(목)	서울캠퍼스	사범대학 지원자에 한함
	5. 합격자 발표	1992. 12. 30(수) (14 : 00) 예정	서울캠퍼스	
후 기	1. 입학원서 및 모집요강 교부	1993. 1. 8(금)-1. 15(금)	서울캠퍼스 총무과 용인캠퍼스 총무과	용인캠퍼스 지원자도 서울캠퍼스에서 교부
	2. 입학원서 접수	1993. 1. 11(월)-1. 15(금) (09 : 00-1700)	서울캠퍼스 교무과 용인캠퍼스 교무과	용인캠퍼스 지원자도 서울캠퍼스에서 접수
	3. 예비소집 및 수험표 교부	1993. 1. 28(목) (14 : 00)	서울캠퍼스	접수증 지참
	4. 입학전형 가. 학력고사	1993. 1. 29(금) (08 : 40-17 : 10)	서울캠퍼스	상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예비소집시 수험생 유의서 참조
	나. 면 접	1993. 1. 29(금) (17 : 30-18 : 00)	서울캠퍼스	학력고사 당일 실시
	다. 교직적성및 인성검사	1993. 1. 30(토)-1. 31(일)	서울캠퍼스	사범대학 지원자에 한함
	5. 합격자발표	1993. 2. 5(금) (14 : 00) 예정	서울캠퍼스	

가. 입학원서 교부 입무는 토요일, 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 함.
나. 후기모집에 지원하는 자는 지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다. 전기모집결과 입학정원에 미달되면 후기모집에서 충원하며, 추가모집이 있을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후기모집 합격자 발표시 공고 함.

9. 기타사항

가. 입학원서(전산카드 포함) 및 모집요강 : 1,000원
나. 전형료 : 25,000원(본 대학교 발행 수입증지를 입학원서의 해당란에 부착)
다. 추천접수는 마감일 17 : 00까지 본 대학교 배달된 지원서(전형료 동봉)에 한하여 접수함.
라. 일단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 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마. 예비소집일에 접수증 또는 장기승(수험접수시)을 제출하고 수험표를 교부받은 후, 당일 배부하는 수험생 유의서를 참조하여 본인의 고사장 및 고사실을 필히 확인하기 바람.
바. 학력고사 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함.
사. 제관서 당한 작성을 컴퓨터 판은 본 대학교에서 제공함.
아. 전자계산기등, 수험에 불필요한 각종 전자기기나 도구를 지참하고 고사실에 입실할 수 없음.
자. 합격자에 대한 개별통지는 하지 아니함.
차. 학력고사 당일 교통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람.
카. 신체장애자 입학안내 상담실 : 교무처 교무과
타. 기타 상세한 것은 본 대학교 교무처에 문의하기 바람.

<별 표 1>

사범대학 지원자의 면접고사,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1. 평가내용
가. 교직수행 능력
나. 교직태도 및 가치관
다. 교직적성 및 인성
2. 평가방법
가. 면접고사와 직필검사에 의한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나. 지필검사 및 면접을 위한 자료를 기술한 후 면접고사를 실시한다.
다. 면접시간은 1인당 10분 내외로 한다.
3. 시행일자
가. 전기 : 1992. 12. 23(수)-12. 24(목)
후기 : 1993. 1. 30(토)- 1. 31(일)
나. 구체적인 시간계획은 예비소집일에 배부하는 수험생 유의서 참조.
4. 유의사항
가.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에 시간엄수, 참석하여야 한다.
나. 평가 당일 지각자 또는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부전공 및 복수전공 제도

1. 부전공 제도

가. 부전공 개설분야(18개 분야)
영어, 불어, 독일어, 노어, 서반아어, 중국어, 일본어, 정치외교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법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국문학, 철학, 교육학, 전자계산학
나. 부전공 제도의 취지
이 제도는 학생들이 전공하는 분야 이외에 다른 1개 분야를 더 이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학생들이 자기의 전공학과 이외의 다른 학문을 추가로 더 공부함으로써 지식의 폭과 안목을 넓히고, 나아가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2. 복수전공제도

이 제도는 부전공을 연장하여 또 하나의 제2전공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입학 당시의 제1전공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재학 중 이수한 부전공을 연장하여 1년동안 제2전공의 학점을 보충하면 부전공이 주전공이 되어 학위를 하나 더 취득하는 것으로써 이 제도는 본 대학교가 어느 대학보다 잘 정착되어 있다.

장 학 제 도

1. 신입생

*전·후기별로 각각 선발함.

장학금종류	선발기준	지급액	비고
왕 관	서울캠퍼스, 용인캠퍼스 입학생 중 전체수석	등록금 전액 4년간(8개학기) 면제	단, 매학기 성적평균 2.80이상 취득한 경우만 지급
의 관	서울캠퍼스 입학생 중 전체수석	등록금 전액 2년간(4개학기) 면제	*
왕 선	용인캠퍼스 입학생 중 전체수석	등록금 전액 2년간(4개학기) 면제	*
우수입학 I	각 단과대학 수석	등록금 전액 1년간(2개학기) 면제	*
우수입학 II	각 학과 수석	등록금 1학기 면제(입학금 제외)	

2. 재학생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총장장학금을 비롯한 교내장학금과 한국장학회장학금 등 외부제공 장학금이 있으며, 전체 학생의 20% 이상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음.
가. 교내 장학금
총장장학금, 동원장학금, 학장장학금, 특대장학금, 성적 '수'장학금, 성적 '우'장학금, 고시장학금, 국가보훈장학금, 학과장학금, 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나. 외부 장학금
(1) 공공기관 장학금
육군 및 해군사관후보생장학금, 한국통신장학금, 한국전력공사장학금
(2) 장학재단 장학금
한국장학회장학금, 정수장학회장장학금, 산학협동재단장학금, 한국식도자육성장학재단장학금, 연강학술재단장학금, 양백제단장학금, 아산사회복지재단장학금, 인촌기념회장학금, 미원문화재단장학금, 운암장학금, 계월장학회장학금, 금호문화재단장학금, 동몽장학회장학금, 금강장학회장학금, 연월문화재단장학금, 신라문화재단장학금, 한불문화재단장학금, 성옥문화재단장학금, 연암문화재단장학금, 계외한국인모국수학생장학금, 정주장학재단장학금, 서남재단장학금, 수당장학회학금, 일산장학회장학금, 우덕재단장학금, 노월문화재단장학금, 우곡재단장학금, 일본어문화원장학금, 인산재단장학금
(3) 기타 장학금
동문장학금, 오무무라장학금, 제한장학금

韓國外國語大學校